

이례적 2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 “건조·강풍” 원인

정선 이어 경남북·충남북서 잇따라
히동 미점마을선 한때 주민 대피령
장비·인력 투입 대부분 진화 불구
건조한 대기·강풍 탓 피해 눈덩이
기압 영향 지속...당국 비뚤 긴장

봄·가을에 집중되는 산불이 이례적으로 2월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22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북 안동과 예천, 경남 하동, 충북 영동, 충남 논산 등 전국 5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 등은 헬기 70여대와 장비 140여대, 인력 30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안동·예천·영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은 21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다. 지난 21일 오후 3시20분께 안동시 임동면 만천리 아산에서 시작해 수 km 떨어진 중평리까지 번진 산불은 21시간만인 이날 낮 12시2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날 오전 일찍부터 경북도·안동시 공무원, 전문·특수진화대, 소방대원, 군인 등 인력 1400여 명과 산불 진화 헬기 22대 등이 현장에 투입됐다. 또한 지난 21일 오후 4시12분께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아산에서 발생해 비뚤을 타고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앞대까지 번진 산불은 18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25분께 큰불이 잡혔다. 이 지역 산불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경북지역 산불로 현재까지 안동(200ha)과 예천(50ha), 영주(5ha) 3곳에서 축구장 37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산불 정리 후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가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41분께 하동군 약양면 미점리 구재봉에서 발생한 산불도 19시간만인 이날 오전 9시45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산불로 소나무와 잣목 등 21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전남 미점마을 등 불이 난 곳과 가까운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7시 날이 밝자 700여 명이 진화작업을 재개했고 산림청·경남도 일차 헬기·소방청 소속 헬기 19대도 진화작업을 벌여 불길을 잡았다. 또한 전남 오후 7시18분께는 전남서북면 덕무리 한 아산에서도 불이 나 산불 진화 헬기 7대를 동원해 오전 9시2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비슷한 시각 세종시 대평동·나성동 등 금강변 일대 갈대밭 4곳에서도 잇따라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비뚤 마른 나무가 빠르게 타들어 가면서 불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강원도 삼척·동해·고성 평지 등에는 건조경보가, 경북 북동산지와 강원 북·중·남부산지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각각 내려져 있다. 돌풍에 가까운 바람도 이번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새벽까지도 강원도 산악 지역에서는 초속 15m 가까운 강풍이 불었다. 산림당국은 앞으로도 기압 영향에 따라 국지적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 것으로 예상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정은 “계속되는 건조·강풍 특보로 산불 위험이 계속 높은 상황”이라며 “불법 소각과 임산자 실화 등 산림 인접지에서는 불시 취급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김윤미기자



산불 정리하는 의용소방대원들 22일 오후 경북 안동시 임동면 일대 한 가족 묘원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림청과 소방당국의 산불 주불 진화 후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태기자

내달 6일부터 광화문광장 서쪽으로 폐쇄

서울시, 동행체계 변경 시행
서쪽 광장권으로 차량통행 불허
동쪽 부분 차로 확장·양방향 통행

이다. 시는 “동쪽 도로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전후로 교통흐름을 분석한 결과 차공 직후 일시적으로 통행 속도가 조금 감소했으나 교통 정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고 예년 수준인 시속 22km의 통행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랑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광화문광장 교통관리 TF’를 가

동하는 등 교통량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했다. 시는 광화문 일대의 평균 통행속도가 2019년 시속 21.6km에서 올해는 2월 21.9km로 소폭 올랐다고도 했다. 류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경찰과 협업해 통행속도 유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코로나19 방역 집중’ 지자체 감사·평가 부담 덜어준다

정부, 방역 주요부서는 감사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감사·평가·점검 등의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평가·시상·훈령 등 32종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감사 시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콘트롤타워 업무와 백신 접종, 확진자 검사 등을 수행하는 주요 부서에는 감사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사업과 재정집행 사항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활치료센터·백신접종센터 등에 일시·

간접 지원한 인력은 감사를 유예한다. 각종 평가도 생략하거나 미뤄진다. 우선 올해 재난관리평가는 생략된다. 합동평가는 평가 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현시적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상 응모 서류 제출 기간은 연장해준다. 전혜철 행안부 장관은 “평가·감사 등을 완화해도 안전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각 지자체에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내달 6일부터 세종대로의 서쪽 부분이 막히고 동쪽 부분은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일대 동행체계를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보빌딩과 주한 미국대사관이 위치한 동쪽 부분은 기존 5개의 차로에서 7~9개의 차로로 일부 확장하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내달 초 마무리 되면 양방향 통행으로 바뀐다. 세종문화회관과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서쪽 도로는 광장 공간으로 편입돼 차량이 폐쇄된다. 이에 따라 동쪽 도로 복단 유턴은 승용차에만 허용된다. 기존 도로는 정부청사 전용으로 바뀐다. 정부청사 남쪽 사직로8길에서는 세종대로로 우회전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는 종로에서 시청 쪽으로 P턴하려면 구세군 앞 교차로까지 한 블록 더 가서 해야 한다. 또한 사직공원 교차로에서 사직로와 사직로 8길 등 두 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경복궁 교차로에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뒤변 종로1길로 진입하는 좌회전을 허용할 방침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 “도 산하 7개 공공기관 이전 환영”

회답문서 “북부발전 대전환점 혁신”
5개 중점규제 해법 정부와 고민도 제안

기관을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존권역으로 이전하는 3차 계획을 발표한 것은 경기북부 주민에게 소외만 받고 있던 지역의 성장이라는 꿈을 이루고 경기도가 경기북부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준 것을 재차 환영하며 경기북부 도의 원형회도 경기도와 발맞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5개 중점규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법, 과밀억제권역에 관한 해법을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역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도 이전 반대 1인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의정부/강진규기자 <kig@jeonmae.co.kr>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콜센터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문의 | 1577-1000

고양시
고양시 특례시 확정
108만 시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단신브리핑

농작물재해보험 내달 5일까지 신청가능

충북도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권장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2만4000농가에서 2만4744ha 면적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 이는 2019년 가입면적 1만9780ha보다 4964ha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 태풍, 병해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1만1285농가(7846ha)에 69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의 시름을 달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를 시작으로 품목별로 가입시기가 다르며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사과, 배, 단감, 딸은 감 가입기간으로 지역 및 품목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22일 "자연재해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입 시기를 꼼꼼히 확인한 후 지역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인철기자 <dkyang6@jeonmae.co.kr>

6월까지 정수장 미일상수도 정기점검

경남도는 도내 정수장 51개소 및 마을상수도 91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물 위생관리 상태,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정수처리기준 준수 여부, 기술진단 이행 여부, 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 등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는 올해 ▲노후화 수도시설 정비사업 ▲정수장 위생개선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2746억원을 투자해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용정 도 수질관리과장은 "상수도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원/김현준기자 <krinj@jeonmae.co.kr>

올해 908억 투입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경북도는 올해 908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3배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기폐차 시 최대 300만원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장치가격의 90% 지원 ▲1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시 400만원을 지원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격의 70% 최대 420만원을 지원하고 경유차 제의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30% 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 지원한다.

도는 올해 4만 대를 감축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광래 도 환경산업지원국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지난해 역외소비를 하나카드 19.2%p·농협카드 2.4%p 각각 감소 투입예산 1억원당 역내소비 9억원 ↑ 역외소비 3800만원 ↓

세종 지역화폐 여민전 판매로 인한 역외유출 방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역화폐 여민전의 소비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여민전 출시 이후 12월 말까지 총 1789억원이 하나카드와 농협카드를 통해 판매됐으며, 그 중 결제액 1642억원이 지역 내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여민전 앱 가입자는 성인인구의 40%인 10.6만 명이며, 연령대별로는 40대 34.2%, 30대 32.1%, 50대 14.2% 순이다.

연령대별 소비는 30~50대 위주로 대부분의 소비(89.3%)가 이뤄졌고 업종별 소비는 음식점, 종합소매점, 식음료 등 소상공인 중심 업종의 매출이 50.6%, 교육, 의료 업종은 27.4%를 차지했다.

소비비중이 높은지역은 아름동 12%, 새롬동 9%, 조치원읍이 7% 등으로, 여민전이 신도심과 구도심에서도 골고루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소비 증가효과가 뚜렷하다.

지난해 역외소비액은 5420억원으로, 전년(3565억) 대비 1855억원(52%)이 증가했다. 전년대비 지난해 역내 소비액 증가분의 88.5%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지난해 역외소비율은 하락했다. 카드별 역외소비율은 하나카드의 경우 전년대비 19.2%p, 농협카드의 경우 2.4%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외소비 지역은 서울(하나 47%, 농협 42%), 대전(하나 25%, 농협 16%)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유통(하나 37%, 농협 44%), 통신, 운송 등 서비스(하나 11.3%), 음식점(농협 12%) 순이다.

지난해 여민전 발행 투입예산 대비 효과는 투입예산 1억 원당 세종시민의 역내소비액은 9억원이 증가했으며, 역외소비액은 38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산 시 기업지원과장은 "참여·상생·세종사랑의 공동체 가치실현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주신 덕분에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지역화폐 발행의 당초 목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세종/유영준기자 <yjyou@jeonmae.co.kr>



수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2일 수원시 이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관계자들이 수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황기원기자

수원시 "산불, 스마트하게 대응한다"

디지털 기기 활용 초등 대응 강화 5월 중순까지 불철 산불 조심 기간

경기 수원시는 신형 디지털무선기기와 GPS 단말기 등을 활용한 산불방지 스마트 통신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무선기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탑재돼 진화대의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산불 발생 현장 사진과 영상을 송출해 지휘소에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산불신고GPS는 정확한 산불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시는 산불신고GPS 60대와 디지털무선기 40대를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5개 대원본부 등에 배치한다.

이와 함께 광고산과 칠보산 일원에 설

치된 총 20대의 산불무선감시카메라를 활용에 산불을 예방하고, 발생 시 현황과 진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15일 까지 불철 산불조심기간 중 시와 구에 산불방지대책본부 5개소를 설치하고 산불중시원 등 189명의 인원을 투입해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을 벌인다.

허영희 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산불방지 스마트 통신체계를 활용해 소중하고 소중한 산과 산자원을 지키고 싶을수록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 및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철 산행을 하는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수원/박원진기자 <spark@jeonmae.co.kr>

충남도, 3대 주력산업 개편한다...육성 지원 167억 투입

충남도가 올해 지역 3대 주력산업을 새롭게 개편한다.

도는 이를 위해 내달 4일까지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도내 관련 중소기업의 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바뀐 디지털로의 전환 등 경제·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 육성 전략 및 예산 투자 계획이 담긴 '충남 지역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주력산업 개편 주요 내용은 지역 균형 뉴딜 및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기존 주력산업에 접목한 산업 영역의 확대 및 고도화다.

올해 새롭게 개편한 충남 3대 주력산업은 ▲친환경 모빌리티(확대) ▲스마트 휴먼바이오(확대) ▲차세대 디스플레이(고도화) 분야다. 먼저 친환경 모빌리티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중심에서 수소 자동차 및 이동기기를 포함하는 모빌리티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어 스마트 휴먼바이오는 지역 뉴딜사업과 연계 효과 극대화를 위해 바이오 식품부터 뷰티, 헬스케어 장치·소재 등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장한다.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지역 특화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유통기업과 바이오·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등 대박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106억원 ▲마케팅·시제품 제작·특허 및 인증·인력 양성 등 사업화(비R&D) 지원 61억원 등 총 167억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조건 등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화원(KIAT) 및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041-415-2165~2169)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과 함께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한성규기자

경기도내 12개 경제단체 조달시스템 "불편"

"현행 조달시스템 진입장벽 높아"..."최대한 절차 간소화 의견 제시" 도 '사회적 활성화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자체 인증제 도입

경기도내 12개 경제단체들은 현행 조달시스템에 대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12개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설명회'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밝혔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현행 조달제도의 문제로 ▲조달 등록절차와 구비서류가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너무 높음 ▲정보조달시스템(MAS)

협회의 적격성 평가를 위한 비용의 과다 및 절차의 복잡성 ▲조달을 이용한 중간유동업체의 가격폭리 ▲자주 바뀌는 제도와 규칙 ▲항상 불통인 안내전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도가 추진하는 공정조달시스템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체 인증제도를 통해 조

달분야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엄격한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민간에서 유통되는 제품 위주로 공정소평물을 운영하고, 경기도 공정조달 등록 기업에 대해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혜택 제공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8월까지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용역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2일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사업주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행

노동자

사업장의 안전경험활동에 적극 참여

안전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노동자는 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지키는 안전,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싱싱한 새우로 태어나 청정원 양조간장을 만났으니 성공한 인생 아니겠는가!

청정원은 혼합간장이 아닌 100%양조간장만 만듭니다

햇살담은 양조간장

순천시청사



순천시, 존중받는 노후 위한 새로운 돌봄 모델 오픈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Korea's Ecological Capital, Suncheon

전남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전남 유일의 도시다. 반면 도·농 복합도시로써 노인 인구가 더불어 1인 가구가 증가, 농촌생활권은 이미 초고령화가 됐다. 이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과 의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과 사회보장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통합돌봄 서비스로 복지 패러다임 전환

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 차별 없는 건강돌봄, 보편적 가치 지향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해도 병원보다는 내 집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주된 소망이다. 마땅히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주거환경이 불편해도 치료나 요양이 아닌 요양의 목적으로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이 많아지고 있다. 낙상이나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발생하는 사고 위험 때문에 보호자도 입원을 더 선호하게 된다. 병원을 나오게 되면 건강관리나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렵고 주거 등 생활환경이 불편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시는 퇴원 후 집으로 복귀해도 일상생활과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조하는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중이다. 살던 지역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정서를 교감하며 선택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제도로 부족했던 복지 수요를 보충하고 분야별 공급 주체들의 서비스를 한데 모아 건강, 의료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돌봄모델을 만드는 통합돌봄 정책을 새롭게 도입했다.

● 케어인심주택 운영

케어인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시, 통합돌봄 서비스로 복지 패러다임 전환 주거·돌봄 한 곳에서 이뤄지는 케어인심주택 운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현자·보호자 부담 완화 지역자원·민관 협업체 구성 돌보는 시스템 구축



공급하고 시가 재정을 지원해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해 어르신들을 케어한다. 세대별 사생활이 보장된 원룸형 독립생활 공간이 있으며 식사와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희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집에서는 퇴원 후 6개월간 자내는 중간집으로 주거, 건강, 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고 회복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간다. 특히 건강관리도 하면서 식사와 미술치료, 텃밭 가꾸기 등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정서적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시는 주거와 돌봄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케어인심주택

을 장기거주, 단기거주, 공동체생활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해 순천형 돌봄 주거 모델로 특화해 나갈 계획이다.

●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부담 완화

단순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진료와 한방 진료, 운동지도, 올바른 약 복용 지도까지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가 직접 상담 진료하고 약 처방까지 한번에 해결하고 단순 의료품은 직접 가져다주는 서비스로 환자는 물론 보호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또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의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병원 접근성을 고려한 의료취약 지역에 돌봄 공동체와 돌봄 인프라를 더 확충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일상생활 불편 해소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한옥 토방 개선, 화장실 미끄럼방지,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안전 편의시설로 고령 노인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식사 지원 서비스 제공과 병원 이동 시 동행하고 안전도 살피는 돌봄 활동단도 파견한다.

그 밖에도 대면·비대면을 병행한 스마트돌봄, 미용서비스, 교통카드지원, 방역, 청소 등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사회와 함께 돌보는 시스템

돌봄 문제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자원과 민관 협업체를 구성해 함께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 보건, 주거와 관련 된 부서와 병원, 의료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강보험공단, 복지관 등 공공·민간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역 내 복지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련 시 여성가족과장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 서길원기자



사진 왼쪽부터 허석(왼쪽 두번째) 순천시청과 허유인(오른쪽 두번째) 의장이 케어인심주택입주를 축하해 주고있다. 노인거주주택에 편하게 마루오르기 계단 설치, 2년 연속 통합돌봄 선도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순천시 제공>



허석 순천시청장

인적자원개발의 즐거운 조립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지역의 모든 것
Q-Net

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WORLDJOB+
Inter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청년취업아카데미

TV WORK NET
한국직업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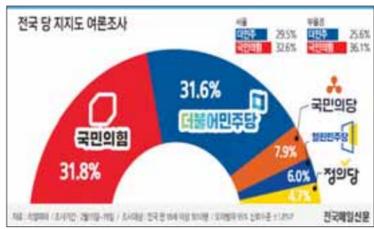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HRD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국민의힘·민주당 서울서 혼전양상 이어가

국민의힘 32.6% vs 민주 29.5%
부울경, 국민의힘 우세 지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3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리얼미터의 지난주 조사때보다 2.5% 포인트 상승한 32.6%, 민주당은 2.2%포인트 하락한 29.5%였다.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1.8% 포인트) 이내인 3.1%포인트다.
부울경에서는 국민의힘 36.1%, 민주당 25.6%였다.
10.5%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이다.
전국 지지율은 국민의힘 31.8%, 민주당 31.6%,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6.0%, 정의

당 4.7%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공정평가)은 40.6%였다.
부정평가는 56.1%로 조사됐으며 모름·무응답은 3.3%다. 공·부정평가 차이는 15.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박영선-우상호, 부동산 정책 놓고 '대립각'

박영선 "강변 서민아파트 맞다"
우상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인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박영선·우상호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 후보는 22일 BBS 라디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토론회에 출연해 우 후보의 공약인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인공부지 조성 공공주택을 건설과 관련, "기초공사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며 "아파트 평당 공사가격을 뽐내보셨느냐"고 물었다.
이어 "분양가가 2000만 원 가까이 될 텐데

그러면 서민을 위한 아파트로는 적당하지 않지 않나"며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조방관의 공공화라는 측면도 굉장히 훼손된다"며 강변에 아파트 공급도 쓰야했다.
이에 우 후보는 박 후보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주택 공급 공약과 관련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은 정책"이라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틀림없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저녁에 사전전환 조정훈 의원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우 후보는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를 방문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與 '백신 접종 협박' 의협에 "단호 대처"

"불법적 집단행동 한다면 엄중히 대처"
정의당 "의협 집단 이기주의에 유감"

의협 "의료법 개정안 전체 반대야"
"대화 통해 접점 찾아 나가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사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에 강력 반발하는 대한의사회를 향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의사집단만 집단이거주의 속에 반발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민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자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다.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의 의사를 관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로도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며 "국회 일부의 상황에 해당하는데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남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의사들도 원래 다른 전문직처럼 급고 이상의 형에 자격이 박탈됐었는데 의약 분업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의사단체 탈리게 차원에서 방만 면허

로 만들어준 면이 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도를 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도대체 얼마나 가깝게 보기에 매번 환자의 생명을 불모 삼아 버렸냐"며 "세상을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뚤어진 엘리트 특권 의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우려를 내세워서 환자의 존엄,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갑질 행위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날 "변호사는 변호사법

에서 그 역할로 인력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장려하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수용 불가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법 전문적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를 응호하는 게 아니라라는 입장도 재강조했다.
김대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해로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습이나 지역, 친목 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전국 의사총과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여야 '대통령 1호 백신 접종' 놓고 충돌

與 "백신 공포 증폭 책동"
野 "AZ 접종 대통령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2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 1호 백신 접종'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1호 백신 접종'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코로나19 백신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 위해 대통령 1호 백신접종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재발 더이상 코로나 위기를 정치공세 이슈로 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됐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안아키)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백신을 대하는 태도가 '안아키'의 반과학적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공포를 증폭시키고 반과학을 유포하는 것은 반사회적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양철우 최고위원도 "굳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며 "민일 대통령께서 먼저 백신을 맞는다면 '백신 특혜'라고 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정쟁을 펼치는 것은 이적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문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대선 후보까지 했다는 분이 최소한의 격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한다. 백신 접종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중민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기자

반면 양철우는 이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문대통령이 '1호 접종'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대통령 1호 접종" 주장에 "국가 원수가 실험대상이나"고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정창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정부 고위 관계자라도 백신 접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중민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누가 어떻게 1차 접종을 해서 국민을 안심시킬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나라는 누가 1호 접종자가 될 것인지 아직도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아스트라제네카는 면역력도 문제지만 안전성도 많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해서 백신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정창래 의원을 향해 "대통령을 돕는대선서 부랴부랴 더 준 것"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리스크가 있다는 건데 아직 50대인 정 의원은 그 사실도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도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달 접종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국민이 실험 대상이라는 말인가"라며 "여당 스스로 백신을 먼저 맞으면서 전 국민 무료접종이라며 홍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이낙연·김종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설전'

이낙연 "이달내 추경안 마련... 꺾히면 안돼"
김종인, 전국민 위로금? 어느 나라도 없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설전을 벌였다.
이낙연 대표는 22일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 적 파해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파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백신 불신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근거 없는 폄하를 계속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로 벼랑에 떨어진 국민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좀 정상적

상황으로 돌아가서 합리적 사고로 말씀을 해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과연 대통령이 국가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 상당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선심성 얘기를 하는 예를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당정이 충돌하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김 위원장은 "자유업자·소상공인, 정부의 방어로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지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김진욱 "공수처, 연간 수사 3~4건 가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2일 향후 공수처가 한 해에 수사할 수 있는 사건 수를 3~4건으로 전망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다양한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 규모를 고려하면 큰 사건은 시너 달 정도 시간 소요에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 채용에 대해서 "오늘날 중에 서 류진형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에 면접 일정을 진행하며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고대로 결정 사유가 없는 지원자 대부분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오는 28일로 기한을 연장한 야당의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과 관련한 "이직 연락을 없지않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운영 관리인 사건·사무, 공보규칙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이달 중으로 시안을 마련하겠지만, 수사 시작 전까지만 완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대희기자

코웨이 정수기, 1등이 만들면 다릅니다

1번 더 앞서가는
총 761건의 정수기 특허 보유

1개라도 더 거르는
직수 전용 RO필터 개발

1명이라도 더 만족시키는
26종의 직수, 얼음, 빌트인 정수기

AIS 정수기 | 한병식정수기 | 빌트인정수기

www.coway.co.kr | 1588-5200 | 코웨이 코디, 전국 대형마트,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물품 기부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최근 삼양식품(삼양원동문화재단)으로부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들을 위한 컵라면과 문구류 100박스를 전달 받았다.

이런 기부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인 학교밖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청소년들의 희망찬 새해를 응원하는 계기가 됐다. 기부물품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과의 나눔을 통해 마인가 대안학교, 미혼모학교 등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성북구 꿈드림은 학교밖청소년을 위해 학업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담(☎02-3292-1785) 혹은 홈페이지(www.sb1318.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재·보선 출마 공무원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선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임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재·보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임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국회의원인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할 경우, 그 사직으로 인한 보결선거는 ▲2월 28일 이전에 결원통지를 받은 때는 오는 4월 7일에, ▲3월 1일 이후에 결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환경순찰팀 '주민불편순찰팀'으로 명칭 변경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최근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의 명칭을 '주민불편순찰팀'으로 변경했다.

이 팀은 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요일별로 순찰하며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팀은 공공시설 방역실태, 어린이보호구역 유해요인, 공원 시설 안전, 공중화장실의 불법 카메라 및 위생, 자전거 이용시설, 공영 주차시설, 제설대책 점검 등 7개 분야를 선제적 집중순찰을 실시해왔다.

신내농장·망우1농장 180개 텃밭 분양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중랑행복농장의 텃밭 180개와 배나무 25그루를 가꿀 도시농부를 찾는다.

22일 구에 따르면 중랑행복농장은 신내1동 신내농장(신내동 256-9)과 망우3동 망우1농장(망우동 423-43)의 두 곳이다. 신내농장은 텃밭 130구좌, 망우1농장은 텃밭 50구좌와 배나무 25그루를 분양할 계획이다.

텃밭 가꾸기를 희망하는 주민은 1세대 당 1구좌(6.6㎡, 약2평)씩 신청할 수 있다. 망우1농장은 텃밭과 배나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분양료는 텃밭의 경우 연간 3만 원, 배나무는 연간 10만 원이다.

도시농부가 되고자 하는 중랑주민은 중랑구청 홈페이지(www.jungnang.go.kr)의 주민참여→인턴넷 신청란을 통해 원하는 농장에 신청하면 된다. 분양 신청자는 모종과 퇴비를 제공받고, 텃밭 가꾸기에 필요한 농기구도 대여한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실시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원일)가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내달 12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주거편의지원 사업'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복지사업중 하나로,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가 해당되며, 임차가구일 경우, 주택소유자가 집수리 공사 및 1년 이상의 거주를 동의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3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구청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서류는 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LED 바닥형 신호등·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등 5개년 계획 수립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이달부터 신기술·지능형 시스템을 접목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중점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32개 초등학교 인근 신호횡단보도를 시작으로 5년간 101개 어린이보호구

역에 LED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한다.

또 신호등과 바닥 LED판이 연동돼 보행자가 신호등을 보지 않고도 신호를 감지할 수 있게 해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적색신호에 보행자가 대기선을 넘으면 경고안내가 나오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5년간 매년 5대씩 확대 설치하고, 운행차량의 현재속

도를 LED로 표시해주는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은 매년 3대씩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호구역 내 465개 교통안전표지판은 모두 야간에 잘 보이는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교체하고,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등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초등학교 보호구역 800m 구간에는 노란색 야광반사시트가 적용된 안전경계석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중구,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연장 승인

가족 친화 직장 문화·여성관리자 육성 의지 반영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연장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과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신규 인증을 받은 후 2년 연장으로 2022년 11월 30일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자격, 투융자 금리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증기준은 70점 이상이나 중구는 88.3점 높은 점수로 통과했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특히 현장심사에서는 구청장 심층인터뷰를 통해 가족친화 직장 문화 및 여성관리자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관심이 확인됐다.

구는 그간 다양한 분야의 복지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사랑의 날, 장기근속 휴가 지원, 우수실 등을 갖춘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 직원들의 휴식기회를 적극 보장했고, 스트레스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마음 건강 상담실, 힐링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눈치보기가 만연한 공직사회에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위하여 전 직원 휴가사용 목표제를 지속 시행하였고 육아휴직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호 구청장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서 (중구 제공)

보내는 직장에서부터 행복해야 가정도 안정되면서 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맞벌이 부부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가족 친화적인 정책 시행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정의 기자 (seo@jeonmae.co.kr)

동작구, 취약계층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확대

오는 12월까지 독거어르신 448가구에 IoT 기기 운영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12월까지 '취약계층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물인터넷 기술(IoT) 적용으로 실시간 안전 확인체계를 구축해 생활환경과 건강상태가 취약한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8년부터 생활 건강 취약 독거어르신 가구에 IoT 기기를 설치해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88가구에 신규 설치해 총 448명의 안전 취약어르신을 돌본다.

구는 오는 6월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자살위험, 독거, 중증 질환 및 관계단절 어르신 ▲고령자, 거동불편 어르신 ▲그 외 실시간 안전확

인이 필요한 어르신 등 어르신육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 취약계층 어르신을 선정, 기기를 설치하고 생활지원사 1:1로 매칭해 실시간으로 안전을 살핀다.

설치된 IoT 기기를 통해 실내 온도, 습도, 조도와 공기질(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감지해 화재 가스 안전을 점검한다.

또한, 어르신의 활동여부를 인식해 움직이지 않고 경과한 시간에 따라 ▲정상(0-8시간) ▲주의(8-12시간) ▲경보(12-24시간) ▲위험(24시간 이상) 4단계로 생활지원사 휴대전화로 구청 상황판 등에 표시돼 더욱 꼼꼼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성여부 의심 시에는 담당 생활지원사에게 즉시 통보돼 119 연계 등 적극적으로



서울 동작구는 독거어르신 가구에 IoT 기기를 설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인 조치를 취한다. 이진희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한파 등에 지친 취약계층 어르신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의 기자 (seo@jeonmae.co.kr)

성북구, 전 구립도서관에서 아동성추행 동화작가 책 퇴출

성북구립도서관, 16일 긴급회의 열어 한예찬 작가 책들 열람 제한 조치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동화작가 한예찬씨의 책을 관내 15개 구립도서관에서 학생이나 시민이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도서는 구립도서관에서 보유할 81권이며 한 씨와 관련된 모든 책을 자료실에 서서고로 이동 조치했다. 현재 대출 중인 일부 도서는 반납되는 대로 열람이 제한된다.

또한 관내 새마을문고 및 작은도서관에도 안전한 어린이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씨의 아동성추행 1심 실형 판결을 안내하고, 내부 규정 등을 검토해 열람을 제한 하도록 했다.

한 씨는 자신이 직접 가져온 초등학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1

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의 주요 저서로는 초등학교생 판타지 역사물인 '서연이 시리즈', 아이로 돌아간 성인인 '사랑 이야기'가 담긴 '틴틴 로맨스 시리즈' 등이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책과 동떨어진 작가의 이름은 지울 수 없는 책의 상처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포토뉴스



구로구청 박동웅 의장은 19일 집무실에서 탈플라스틱 실천을 위한 '고고챌린지'에 참여하고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은 씻어 재활용하는 생활습관을 실천하겠다"며 구민들의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동참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구로구를 지켜줄 수 있다. 이번 캠페인 참여가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의 기자 (seo@jeonmae.co.kr)



은평구 블랙야크,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업무협약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최근 블랙야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은평구 리모아모아사업에서 수거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산업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구의 재활용 시책인 리모아모아사업에서 선별한 고품질 투명페트병을 비이앤블랙야크의 기술력을 통해 고부가 가치 친환경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임형찬 기자 (imhc@jeonmae.co.kr)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강남구 제공)

강동구, 올해 '어르신 활력 회복의 해'로...사업 추진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사업 지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올해를 '어르신 활력 회복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독려를 위해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와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 여가문화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전년대비 11% 증액된 1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과 여가문화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한글·한문서예, 한국화 등 어르신 취미·여

가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어르신 문화즐거움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화요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외출조차 쉽지 않아 문화 활동이나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한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문화공연이다.

공연은 어르신들이 쉽게 오실 수 있는 동네 공연을 활용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연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르신들에게 차예배방음 놀이용품, 트라CD 등으로 구성되는 문화즐거움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르신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채로운 여가문화 활동을 준비했다"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어르신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uw@jeonmae.co.kr)

서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친구랑' 4호점 개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흥은2동에 초등학교생 방과 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친구랑'을 조성하고 22일 개원했다.

구는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생활 근거리에 돌봄 서비스 시설을 확충했다. 2019년 북가좌동 1호점, 지난해 연희동 2호점, 지난달 홍제3동 3호점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 문을 열었다.

정원은 매일 이용하는 '상시 돌봄 아동' 25명, 필요시에만 이용하는 '일시 돌봄 아동' 5명이다.

'학기 중에는 평일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방학 중에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기본 돌봄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및 위생·건강 관리, 급식·간식 제공, 교통안전 지도 등을 수행한다.

또한 어린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음악, 미술, 체육, 독서, 요리, 텃밭가꾸기, 보드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학교 온라인 학습도 지원한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하루 2회 발열체크, 하루 1회 방역 소독, 외부인 출입제한 등을 시행한다. 흥은2동 키움센터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이 맡는다.

문석진 구청장은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초등학교생 돌봄 지원을 위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3곳에 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형찬 기자 (imhc@jeonmae.co.kr)

성동구,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1월~6월...코로나19 피해업체 대상 지난해 이어 올해 1억 6000만원 추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을 빌려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5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공유(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업체로 공공시설을 사용한 경우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감면 비율만큼 환급해 주고, 납부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개월간 52개소 2억3000여 만 원을 감면, 올해 1억 6000여 만 원을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만큼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uw@jeonmae.co.kr)

도봉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든다

공공시설물 개선비용 구자체예산 지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낡고 위험한 공공시설물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도봉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주 도로와 보안도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정지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사전거주자와 관련 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태백시설 설치

개선 ▲에너지절약과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등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4월 2일 이전으로 신청서 등을 갖추어 주택과(2091-3504)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사업을 희망 공동주택 사업비의 50~60%(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구는 입주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은 관내 총 4개 공동주택에 3억 7000여 만 원을 지원, 노후 변압기 교체, 파손된 도로 보수 등,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거시설의 60% 이상이 아파트인 우리 구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정의 기자 (seo@jeonmae.co.kr)

종로구, 시설물 철거·통합·정리 ‘도시비우기 사업’ 매진

올해 신규 시설물 사전심의·훼손 시설물 정리정돈에 주력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준)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비우기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종로구만의 대표적인 환경정비 사업이다.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도시시설물은 철거해 ‘비우고’, 유사 기능을 가진 시설물은 통·폐합해 ‘줄이고’, 노후·부식·훼손된 시설물은 유지 및 보수해 ‘정리하고’, 신규

시설물의 최소·최적 설치를 통해 ‘미리 비우는’ 것이다.

구가 지난 8년 동안 도시비우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2만 8237건(비우기 5721건, 줄이기 286건, 정리하기 2만 2230건)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부터는 도시비우기의 개념을 ‘정리정돈’까지 확장시켜 세종대로 등 주요거리 시설물에 발생한 ‘녹을 제

거’하고, 오랜 기간 방치된 내대지를 ‘주민 쉼터로 조성’하는 쪽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 공모로 ‘자하문로-창의문길 도시비우기 사업’을 진행한 결과, 6개소에서 30여개 시설물을 이전·철거·통합하고 각각 설치돼 있던 가로등과 교통신호기 10개를 5개로 줄인 바 있다.

구는 올해 신규 설치되는 시설물을 사전 심의에 최소화하고 녹 발생이나 낙서 등으로 훼손된 시설물은 도색하는 정리정돈에 힘쓸 계획이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폐통신주 같은 시설물도 적극 정비한다.

김영준 구정장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도시비우기 전담팀을 운영하고 관련 조례 제정으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8년간의 경험을 살려 올해에도 도시시설물을 비우고, 줄이고, 정리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융합형’ 송파키움센터 15호점 개소...가장 큰 규모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양육환경 조성할 것”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송파키움센터’ 15호점을 개소, 틈새 없는 돌봄 실현에 나섰다.

‘송파키움센터’는 초등학교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이다. 학교수업을 마친 학생들에게 놀이와 학습이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맞벌이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에게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방과 후 돌봄 강화’를 선정하고 지난 2년 동안 송파키움센터 확충에 힘써왔다. 2019년 4개소, 2020년 10개소를 설치

해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1일 개소한 15호점(잠실본동 2호점, 백제고분로 139)은 전용 면적 210㎡, 정원 45명으로 송파키움센터 중 가장 큰 규모다.

구는 특별히 다양화 되고 있는 돌봄 수요를 고려해 15호점을 ‘융합형’으로 조성했다. ‘융합형’은 아동 보호와 놀이에 주안점을 둔 키움센터 역할에 마을의 돌봄 자원과 연계한 급식 제공, 주·야간 및 주말 돌봄 공백 보완 등의 기능을 더한 것이다.

이에 따라 15호점은 인근 다른 센터와 협력해 석식 제공, 아침 돌봄(08시), 클라이밍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진

행한다.

특히 평일 야간(8시~20시) 및 토요일(9시~13시) 상시 운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대상은 만6세~12세 초등학교생이며, 신청 및 기타 문의는 송파구청 아동돌봄청소년과(☎02-2147-3790)로 하면 된다.

구는 2022년까지 송파키움센터를 26개소까지 확충해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에 송파키움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구 고유의 교육플랫폼인 ‘송파쌤’과 연계해 단순 돌봄을 넘어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서초구,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매월 7만원 지급

서울시 최초...관련 조례 개정예산 1억 5624만원 확보

서울 한 자치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7만 원을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초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억 5624만원의 예산을 확보, 이달부터 지

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2일 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끊겨 지원과 예우를 받는데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신청한 달

부터 월 7만원이 매월 말일 지급된다. 단, 보훈예우수당 지급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추가 지참 신청 가능하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건(1년 이상 거주)을 폐지해 기준을 완화하고,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보훈 대상자에 추가시켰다.

이 밖에도 서초구 1년 이상 거주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했던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전제로 확대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광진구, 유희공간 활용 ‘청소년아지트’ 2곳 생겼다

자기개발·휴식·놀이·소통 공간...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지역 내 유희공간에 청소년들이 주제적인 자기개발과 휴식·놀이·소통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힐링공간 ‘청소년아지트’를 조성했다.

청소년아지트는 ▲종곡3동 청소년독서실 열람실 ▲자양4동 자양힐링공공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랩스 2곳을 보수·개선에 마련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시비 1억 8500만 원이 투입됐다.

종곡3동 청소년독서실 내 위치한 1

호점 청소년아지트는 56㎡규모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의공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 PC공간 등으로 조성됐다.

기존 청소년독서실은 보드게임, 도서 등을 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자양4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마련된 2호점은 38㎡ 규모로, 플레이스테이션과 보드게임, 도서 등이 구비돼 있다. 청소년 상담복지지원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아지트는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미 운영중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바로 개방할 계획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광진구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아지트를 조성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청소년아지트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잠시 학업을 떠나 친구들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용산구,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6월 착공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공동주택 969세대·부대복리시설 등 아파트 13개동 조성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위치는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외 10필지다. 사업기간은 계획 승인일로부터 40개월간이며 시행면적은 5만 1915㎡(대지면적 4만 6524㎡, 도로 5391㎡)에 달한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969세대)과 부대복리시설이며 지하3층, 지상 11~32층 규모 아파트 13개동(근린생활시설 2개동 별도)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대부분(819세대) 일

반분양이며 150세대를 국도교통부에 기부채납, 공공청사(주한 미 대사관 직원 숙소)를 쓴다. 미 대사관 직원들이 동별 4~25세대씩 나눠서 입주할 예정이다.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은 과거 용산 미군부대와 국군 복지단,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쓰였던 부지다. 200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으며 2014년 부영그룹이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쳤으며 남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오는 6월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미 대사관 직원 숙소는 당초 용산기지 캠프코너인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향후 용산 미군기지에 조성될 용산공원 북쪽 통로가 모두 막힐 것이라는 판단에 2016년부터 아세아아파트 구역으로 미 대사관 직원 숙소 이전을 추진, 서울시가 해당 내용을 공식화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한강로동에 대규모 아파트촌이 새롭게 조성된다. 지역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남영·후암동과 이어지는 용산공원 북쪽 통행

로 3만㎡를 추가로 확보한 만큼,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용산구 제공)

노원구, 구청 직원 대상 전문심리상담 실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포함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구청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구청 직원들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불친절로 돌아가는 민원인과 부딪고 과태료 부과 등으로 수시로 항의의 전화를 받게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방역과 단속, 자가

격리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구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 2421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 대상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누적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 또는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성격적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업무를 알고 싶거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 등이다.

신청 직원은 기본 상담 3회를 진행하고 위기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상담을 연장하거나 전문병원과 연계해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직원의 정신적 안정은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 공공기관 ‘지역서점 우선구매’ 조례 대표발의

지역 서점 안정적 운영 기대...지역 복합문화공간 기능 확대

송명화 서울시의원(사진)은 최근 ‘서울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온라인 활성화와 코로나 19로 경영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서점들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도서관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의 책주 조항에 지역서점에 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와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방안 마련을 추가시켰다.

송명화 의원은 강동구의회 의원으

로 재임 시에도 강동구 서점연합회의 애로점을 청취해 강동구청 당당부서에 서점협동조합 설립을 제안, 조합설립을 돕기도 했다. 강동구의 공공도서관 도서관 입시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도록 촉구해 시행하는 등 사라져가는 동네서점

살리기에 앞장서 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서울시서점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송 의원은 “조례가 개정돼 지역서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지역서점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양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체계적 지도·점검

주택단지 354개소·도시공원 97개소·어린이집 38개소 등 총 501개소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안전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2021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주택단지 354개소, 도시공원 97개소, 어린이집 38개소 등 총 501개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로,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구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서울시 지도 점검 일정과 연계하여, 안전관리 의무

이행 및 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의 주요사항은 안전검사 여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보험갱신, 매월 안전점검 시행 및 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조합 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흔들 놀이기구 등의 연결부위 고정성, 신체 부위가 걸 수 있는 틈새 여부, 녹슬거나 금 간 곳, 볼트나 나사의 풀림 등의 시설물 관리상태를 집중 조사 점검하게 된다.

안전점검은 행안부 고시 내용을 통해 누구나 육안으로 관찰하여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목록을 사용한다. 관리주체 및 소관부서 담당이 표본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민간 전문 기관과 협동 점검을 통해 전문가의 점검도 함께한다.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은 위와 같이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1차 자체점검, 2차 시설물 관리감독 부서의 표본점검, 그리고 민간 전문가와 시·구 합동 3차 점검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할 예정이며, 장기적 조

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구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놀이터’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놀이시설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이용자가 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이행 여부나 안전관리자의 연락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안전정보제공 및 안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금천구 호암산 불법배드민턴장 생태공원으로 재탄생

사유지 매입해 산림 복원·생활SOC 확대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호암산에 난립해 산림을 훼손하던 불법배드민턴장 5개소를 정비하고, 생태공원으로 재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했다.

시흥동과 독산동에 위치한 호암산은 구의 힐링공간이다. 1986년부터 개

발제한구역내 불법배드민턴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잦았다.

구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배드민턴장이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해 배드민턴장과 회원을 제거해 2년간 사전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유성훈 구정장은 “장기 사설화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던 불법 배드민턴장 문제를 해결해 산림을 복원하고,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코로나 불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SOC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송파구의회 ‘세대정치연구회’ 활동 개시

환경교육 활성화 중점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이항수)는 의원연구단체인 ‘세대정치연구회’(회장 이서영)가 활동을 시작했다.

‘세대정치연구회’는 다양한 연령층의 입장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우수조례 발굴 및 제정을 목적으로 제8대 송파구의회에서 구성돼 활동한 3년차 의원연구단체로 이서영 의원을 회장으로 부회장 정영숙, 김희숙, 나봉숙, 윤영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세대정치연구회는 ▲작은 도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한 바 있다.

향후 ▲국내 타 시·도 분야별 우수 조례 입법사례 연구 검토 ▲찾아가는 연구 활동으로 현장 속에서 자발적 의견 파악 ▲송파구 조례에 대하여 조



서울 송파구의회의 의원연구단체 '세대정치연구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송파구의회 제공)

사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불합리한 조례 개정 등의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이서영 회장은 “올해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 활동을 추진

해나갈 것이며, 모든 세대가 정치적 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특위...위원장 유인애 의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지난 19일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대 아동의 조기발견, 신고, 보호 및 아동학대 가정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유인애 의원, 부위원장에 조윤섭 의원을 선임했다.

유인애 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섭 의원은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는 유인애, 조윤섭, 이정식, 구본승, 김미연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5월 18일까지 3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서울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아동복지 특별위원회(왼쪽부터 김미연, 조윤섭, 유인애, 이정식, 구본승 의원). (강북구의회 제공)

인천시, 부평 캠프마켓 문화중심 정책 추진

서로e음 사용자 40만명 돌파

인천 서구는 지역화폐 '서로e음' 사용자 수가 최근 40만 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구 인구 54만여 명 중 74%에 해당하며, '서로e음' 사용 가능 연령인 만 14세 이상 인구 48만여 명 중에서 무려 83.3%에 달하는 수치다.

서로e음의 이 같은 성공 비결에 대해 구는 주민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꼽았다. 또 전자식 모바일 플랫폼을 선택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서로e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시즌제를 도입하며 온·오프라인서구, 배달서구, 혜택+서구, 송금 등 플랫폼에 기반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기부 채널을 운영해 다른 지역화폐와 차별성을 띤 것도 서로e음만의 강점으로 평가된다.

서로e음은 2019년 5월 첫 발행 후 1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발행액 1조원을 달성하며 지역화폐의 역사를 새로 쓰기도 했다.

인천 /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공식로고·캐릭터 공모

인천 연구소가 올 가을 개최되는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의 공식로고와 캐릭터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상징성과 파급력이 있는 공식 로고와 캐릭터를 발굴해 오는 10월 행사 개최까지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수상작은 '글로벌 건강교육과 위기대응'이라는 주제에 대한 적합성과 심미성,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대상 1건 500만 원, 우수상 2건 각 150만 원, 장려상 3건 각 5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전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내달 10일까지 접수하며, 로고와 캐릭터 창작물을 공모참가신청서 등과 함께 공모전 사무국 이메일(denanoom@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 /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장기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인천 계약구는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법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내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자를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북인천복지부의 사망의심자(HUB) 시스템·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복지급여·복지수당·기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이용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명단을 기초로 비대면 사실조사, 직권조치(탈소)를 하게 된다.

구는 최근 각 동의 주민등록담당자들과 비대면 ZOOM 화상회의를 실시해 대면조사 금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직권조치(탈소)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전했다.

직권조치(탈소) 대상자로 선별되면 내달 7일까지 재등록 공고 절차를 거쳐며 공고기간 내 재등록 신고가 없는 경우 직권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인천 /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업체 경비 강화

인천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업체인 셀트리온의 경비를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안전하게 생산·유통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이 업체에 폐쇄회로(CC)TV 등 장비를 확충하고 2시간마다 1차체력 순찰하는 등 경비 수준을 강화했다. 특히 비상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업체에 112상황실과 연결된 직통전화도 설치했다.

인천 /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시도교육, 웅진군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기탁

인천 웅진군인재육성재단은 최근 균형 소외의실에서 북도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김욱태 북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여건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합설 수 있도록 웅진군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 사업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정민 이사장은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속에서 밝은 내일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북도면 시도교육청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웅진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 /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캠프마켓 내 신촌문화공원 조성 문화영향평가 완료 <上>

평가 결과 적극 반영 '지역문화와 조화·특색있는 관광지 조성' 최선 박남춘 시장, 업무보고회에서 관계부서간 업무추진체계 구축 특별지시

인천시가 지난해 7월 착수한 캠프마켓 내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가 이날 완료됐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신촌문화공원이 지역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이원재 경제성장, 프런티어 정신 강조 올해 정책추진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리며 본 사업을 꼼꼼하게 챙겼다.

문화영향평가는 지난 2013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과 정책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문화적 가치의 사회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캠프마켓 문화영향평가는 문화를 중요시하고 각종 정책을 문화화하기 위한 시의 정책방향성을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다.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지자체 스스로 문화적 영향을 연구하는 '자체평가'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전문평가'로 나뉜다. 전문평가의 경우 또다시 평가의 심도에 따라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나뉜다.

특히 이번 시의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작년도 전체 31건의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오직 3곳(인천·전북·의산·부산)에 해당하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타 지역의 평가 유형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 및 반환 등 역사적 의미와 향후 인천지역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고유의 연구 가치를 인

문화를 중요시하고 각종 정책을 문화화하기 위한 시의 정책방향성을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다.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지자체 스스로 문화적 영향을 연구하는 '자체평가'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전문평가'로 나뉜다. 전문평가의 경우 또다시 평가의 심도에 따라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나뉜다.

특히 이번 시의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작년도 전체 31건의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오직 3곳(인천·전북·의산·부산)에 해당하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타 지역의 평가 유형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 및 반환 등 역사적 의미와 향후 인천지역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고유의 연구 가치를 인

문화를 중요시하고 각종 정책을 문화화하기 위한 시의 정책방향성을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다.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지자체 스스로 문화적 영향을 연구하는 '자체평가'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전문평가'로 나뉜다. 전문평가의 경우 또다시 평가의 심도에 따라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나뉜다.

특히 이번 시의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작년도 전체 31건의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오직 3곳(인천·전북·의산·부산)에 해당하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타 지역의 평가 유형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 및 반환 등 역사적 의미와 향후 인천지역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고유의 연구 가치를 인

문화를 중요시하고 각종 정책을 문화화하기 위한 시의 정책방향성을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다.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지자체 스스로 문화적 영향을 연구하는 '자체평가'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전문평가'로 나뉜다. 전문평가의 경우 또다시 평가의 심도에 따라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나뉜다.

특히 이번 시의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작년도 전체 31건의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오직 3곳(인천·전북·의산·부산)에 해당하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타 지역의 평가 유형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 및 반환 등 역사적 의미와 향후 인천지역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고유의 연구 가치를 인

문화를 중요시하고 각종 정책을 문화화하기 위한 시의 정책방향성을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다.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지자체 스스로 문화적 영향을 연구하는 '자체평가'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전문평가'로 나뉜다. 전문평가의 경우 또다시 평가의 심도에 따라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나뉜다.

특히 이번 시의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작년도 전체 31건의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오직 3곳(인천·전북·의산·부산)에 해당하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타 지역의 평가 유형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 및 반환 등 역사적 의미와 향후 인천지역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고유의 연구 가치를 인

문화를 중요시하고 각종 정책을 문화화하기 위한 시의 정책방향성을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다.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지자체 스스로 문화적 영향을 연구하는 '자체평가'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전문평가'로 나뉜다. 전문평가의 경우 또다시 평가의 심도에 따라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나뉜다.

특히 이번 시의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작년도 전체 31건의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오직 3곳(인천·전북·의산·부산)에 해당하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타 지역의 평가 유형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 및 반환 등 역사적 의미와 향후 인천지역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고유의 연구 가치를 인

문화를 중요시하고 각종 정책을 문화화하기 위한 시의 정책방향성을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다.

정방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캠프마켓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이번 캠프마켓에 대한 평가는 계획의 수립 뒤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공영개발사업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역사적·문화적 영향을 검토하고, 나아가 방향을 설정하는 등 지역 문화와 어우러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섬세하게 접근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정방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캠프마켓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이번 캠프마켓에 대한 평가는 계획의 수립 뒤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공영개발사업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역사적·문화적 영향을 검토하고, 나아가 방향을 설정하는 등 지역 문화와 어우러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섬세하게 접근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군포시, 청년 자생력 확보 전폭 지원

속초엑스포 야외썰매장 인기

강원 속초엑스포 야외썰매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1000명이 찾은 가운데 부모와 아이들은 도심속에서 마린뷰 야외 썰매장에서 함께 썰매를 타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며 행복해 하는 모습 속에서 가족사랑과 함께 코로나19로 부족했던 아름다운 가족 추억을 만들어 잠시나마 코로나 블루를 잊는 시간을 가졌다.

시설운영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운영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입장시에는 출입자 명부작성, 열화상카메라체크, 체온체크, 손소독,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입장 가능하며 오는 5월 9일까지 운영한다. <속초/윤택훈기자 <youth@jeonmae.co.kr>

제한속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개선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22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내 272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안전속도 5000' 정책이 오는 4월 17일 시행되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에서다.

안전속도 5000은 교통사고가 잦은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낮추려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 구는 내달말까지 지난해 신수로 등 5개 구간(약 45km)에 신규 설치한 최고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과산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운전자들이 도로에 따른 제한속도를 쉽게 확인하도록 표지판 위치조정 등 시인성 향상을 위한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인/유완수기자 <youns@jeonmae.co.kr>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로 재활용 촉진

충남 보령시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읍면동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이스팩 수거함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택배와 배달·식품 등 사용이 급증해 1회 사용 후 버려지는 경우가 증가해 재사용을 장려하고자 설치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아이스팩 수거함에 오염 및 훼손되지 않아 재사용이 가능한 펠 타입 아이스팩을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출하면 되고 물이 들어 있는 아이스팩은 물과 포장재를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시는 매월 2회 수거함에 모인 아이스팩을 대전항 상인회에서 운반·세척 후 재활용을 원하는 상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신원철 환경보호과장은 "아이스팩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감량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령/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겨울방학 가족 구강건강 캠프 운영

충남 서산시 '겨울방학 가족 구강건강 캠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만 6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4인 가족이 1팀으로 오는 26일까지 서산시구강보건센터에서 운영한다.

가족구강건강캠프는 온 가족이 참여해 구강보건교육 및 다양한 구강건강 체험을 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1일 17가족(4인 기준)씩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프로그램은 구강 기본 교육, 자가 구강위생 체험, 가족 치아 놀이, 계단 이용 불소 실험, 의사·환자 역할 놀이, 충치예방 치료 등 다양한 체험으로 마련했다.

서산/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정부 보급증 공·팔 종자 내달 16일까지 신청

강원 인제군이 내달 16일까지 정부 보급증 공·팔 종자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 품종과 공급받은 대원콩, 대풍콩, 장이콩과 팔 이리리종이 보급 예정이다.

대원콩 품종은 오래 동안 공급돼온 보급증 품종으로 탈립에 강하고 두부용 품종으로 지역 적응성이 높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대풍콩 품종은 콩 불머름병과 모자이크바이러스에 강하고 도복에도 강한 내재해 다수성 품종으로 지역 적응성이 높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공급은 4월 이후 농협을 통해 이뤄질 예정으로 공급 가격은 5kg당 콩 2만8000원 소득품과 미소독품 가격이 동일하고 선택 가능하며 팔은 5kg당 4만8000원이다.

인제/이종빈기자 <ejb@jeonmae.co.kr>

주거환경개선사업 전개

강원 고성군노인복지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겨울 한파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의 주거환경개선키트를 제공,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한 생활 유지를 위해 실시된다.

이와 관련 복지관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시군구노년정책지원회 지정기탁으로 500만원을 후원받아, 지난날 22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4주간 동파로 인한 누수 배관 공사 및 보일러를 교체했다.

고성/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224억 투입 36개 세부과제 추진

생활경제 대처능력 제고·정신건강 지원 등 초점 맞춰

경기 군포시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팔 걷고 나섰다.

22일 시는 청년들의 권리 증진과 기회 확대, 생활안정, 문화 향유 골자로 하는 '2021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 활동이 다

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청년들의 생활경제 대처능력 제고와 정신건강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청년에게 정답이 미래를 가르치다'(청년 ROSE 프로젝트)는 강령과 함께 ▲청년생태계 구축, ▲청년 능력 향상, ▲청

년 안전망 구축, ▲청년 활력 증진 등 4개 추진전략과 36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청년생태계는 '청년 생활경제 교육'과 '청년 활동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올바른 신용과 부채 관리, 저축과 투자, 합리적인 소비 방법, 금융사기 피해 예방, 'I-CAN 플랫폼'의 청년 네트워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청년 능력 향상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프로젝트'와 기업 및

취업 실무교육을 통해 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역기업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사업' 등을 마련했다.

청년 안전망 구축은 '청년 삼리 링크사업'과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들의 심리·정서 위축을 고려해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이상 시 초기 집중치료를 추진한다.

또한 청년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청년 상호 간의 소통을 유도하는 '청년 활동 책자

제작'과 청년들의 일상을 소재로 하는 동영상 콘텐츠 '청일락' 공모전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24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한겨레 시장은 "군포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청년이 살아야 군포가 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산다는 자세로 관내 청년들의 자생력 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경기 고양시는 최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이재준(왼쪽 세번째) 고양시장을 비롯해 정정희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등 관계자들과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다짐

"글로벌 스포츠 산업도시로 도약"

경기 고양시는 최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가 국기 태권도를 특화 종목으로 발전시켜 최고의 스포츠산업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세계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에서는 조직위원회 발족, 참가 선수단 초청, 입·출국 업무지원, 선수단의 숙박·교통·의료·안전 대책 마련, 대회 홍보, 개·폐회식 등 주요 행사를 지원하고 대한태권도 협회에서는 경기 진행 및 심판진 구성 등 전반적인 경기운영 분야를 맡는 등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정희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은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한태권도협회, 물론 경기도태권도협회, 고양시태권도협회 등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고양시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소비·고용 등 부가가치 창출, 세계 태권도인의 화합 및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 등을 기여하는 한편 참여 국가와 관내 도장을 연결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스포츠 산업도시로 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양/임정일기자 <imci@jeonmae.co.kr>

서천군, 신청사 주변도로 확장공사 추진

화곡리·군사리 일원 4차선도로로

85억 투입 내년 9월 준공 목표

충남 서천군은 신청사 이전과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주변도로 2개 노선 확장공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군계획시설 2개 노선 확장공사를 시작했다.

서천을 화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사는

서천역사거리에서 서천역까지 기존 2차선도로를 폭10m 연장510m 규모의 4차선도로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서천을 군사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사는 오거리회전교차로에서 한산방향으로 기존2차선도로를 폭18m 연장580m 규모의 4차선도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군은 이 2개 노선 공사가 완료되면 군 신청사를 찾는 주민 및 외부방문객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정주여건 및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주변 토지의 이용효율이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노박래 군수는 "도시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도로 개설과 기존도로 정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천/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향후 서천과 장항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결도로 등 5개소의 군계획시설 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으로 향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시가지 정비사업과 병행해 도시기반 시설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임정일기자 <imci@jeonmae.co.kr>

삼척시, 내달부터 방역소독장비 대여사업 활성화

강원 삼척시가 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장비 대여사업을 활성화한다.

올해는 휴대용 방역소독장비 30대를 추가 확보해 기존 삼척시보건소, 도계보건지소, 원덕보건지소 등 3개소에서 나머지 읍·면 보건기관 12개소를 포함한 1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대여장비는 휴대용 초미립살포기로 장비

도록 709개소에 방역약품지원과 함께 휴대용 방역소독장비를 대여했다.

올해는 휴대용 방역소독장비 30대를 추가 확보해 기존 삼척시보건소, 도계보건지소, 원덕보건지소 등 3개소에서 나머지 읍·면 보건기관 12개소를 포함한 1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대여장비는 휴대용 초미립살포기로 장비

휴대용 장비 30대 추가 확보

대여 기관 15개소 확대 운영

대여시 방역약품도 함께 제공되며 방역장비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방역소독장비 대여 기관을 방문해 방역소독 방법 및 안전관리 주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대여가능하며 대여기간은 당일오 후 6시까지 반납하면 된다.

삼척/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경기 광주로타리클럽, 취약계층 예방접종비 지원 '훈훈'

남부무한돌봄센터와 연계 협약식 체결

국제로타리클럽 경기 광주클럽이 취약계층 300여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광주클럽에 따르면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를 해왔으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남부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신봉훈 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현 시장도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시 취약계층의 건강복지가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며 "항상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광주로타리클럽과 함께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클럽은 매년 4500만원의 정화금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고등학교 및 시민들에게 무료 마스크



국제로타리클럽 경기 광주클럽이 취약계층 300여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로타리클럽경기광주클럽 제공>

지원사업과 기관 및 가정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생활용품과 전선용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광주/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정선군, 남평1지구 대상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강원 정선군은 남평1지구를 대상으로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남평1지구'의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30일간 비대면(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남평1지구'는 북평면 남평리 453번지 일원으로 904필지 1158천㎡ 규모의 사업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

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협조사항 등을 담은 동영상용 제작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반복시청이 가능하도록 정선군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후 사업 추진은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지목, 경계, 소유자 등 토지현황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정선/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안양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7월 개원

경기 안양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화성장제 시설에 대한 해소가 목전에 왔다.

시는 6개 지자체와 공동 추진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하 함백산추모공원)이 마침내 오는 7월 개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속곡리 일원 30만㎡ 부지에 총 건축면적 16,941㎡ 규모의 장사시설 건립된다. 시는 총사업비 1714억 원 중 230억 원을 부담한다.

안양시를 비롯해 화성, 부천, 안산, 광명, 시흥 등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종합 장사시설로 화장(13기), 봉안(2만 6,514기), 자연장지(2만 5,300기), 장례식장(8실)과 부대시설 등이 내달 준공을

앞둔 상태다.

중공 후 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호형 종합장사시설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마침내 오는 7월 개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속곡리 일원 30만㎡ 부지에 총 건축면적 16,941㎡ 규모의 장사시설 건립된다. 시는 총사업비 1714억 원 중 230억 원을 부담한다.

안양/배진석기자 <baeis@jeonmae.co.kr>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최대 300만원 지원

충남 홍성군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임업인으로 매년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로 군은 총사업비 5000만원

을 투입하며 농가당 60%를 보조 지원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달 5일까지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충청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철시 환경과장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농가 피해예방 등을 위해 45명의 홍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경기 연천군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현판식에서 김광철 군수(왼쪽 네번째)가 직원들과 함께 현판을 담은 천을 걸어내고 있다. <연천군 제공>

연천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운영 개시

생계형 범죄 미연 방지

경기 연천군은 최근 노인복지관에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개점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지원금 600만원으로 냉장고 및 진열대 등의 집기류를 구입했고 지원연계 및 후원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연천군 지역 특성상 물품 후원 연계가 어려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천군 지정기탁금 1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먹거리 및 생활용품 구입했다.

이는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운영과 대상자 먹거리 및 생활용품 지원에 사용된다.

대상자는 군 관내 거주자로서 전 연령 긴급 생계 위기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타 기부수품이 필요한 자, 저소득층,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빈곤층이며 제도권 내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

활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이다. 연천군노인복지관은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의 중추적인 운영 및 대상자 내방 시 핵심 대상자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업무를, 연천군 관내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그냥 드림 코너 대상자 추천명단 송부 및 행복예를 선별 확인에 대한 전화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월~금 오후 2시~오후 5시까지이며 해당 시간에 담당 직원이 상주해 운영한다.

김광철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생계형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당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운영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천/김진호기자 <kimjh@jeonmae.co.kr>

산청군 '도시재생' 주민 의견 반영이 성공 열쇠

청년농업인 4-H 신규 회원 모집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청년농업인4-H 신규 회원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원가입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30세 이하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거주하는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환경·생명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 어갈 전문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도록 품목분과 학습활동, 우수농장 현장교육, 영농 실천과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을 도 농업기술원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속한 농업 환경 변화에 첨단기술 활용과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청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경북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도전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경북 /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군립 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 모집

경남 의령군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의 현수탁자와 계약이 오는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병원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탁운영자에게는 시설운영비 연 2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탁운영자 신청 자격은 ▲의료법인(법인의 대표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외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단,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경영이 있는 자)이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근무시간내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고 추가 사항은 의령군보건소(☎ 570-4014)로 문의하면 된다.

의령 / 최판규기자 <chpag@jeonmae.co.kr>

수령면허증 PVC카드 발급

경남 진주시는 수령면허증 PVC카드 발급기를 도입해 22일부터 운영한다.

기존 면허증은 종이로 인쇄 후 코팅된 형태였기 때문에 소지하기 힘들고 습기에 약해 쉽게 훼손되며 위·변조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새로운 면허증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휴대성이 향상되며 보안 홀로그램이 내장돼 위·변조가 방지 효과가 있다.

대상은 수령면허증을 신규, 갱신, 재발급하는 경우이며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직접 시청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진주 / 박종복기자 <bjb@jeonmae.co.kr>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전남 구례군은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사업비 약 11억원을 투입 슬레이트 철거 200동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5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34만 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이달 말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례 / 양관식기자 <yang-ka@jeonmae.co.kr>

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 청년사업자 모집

경북 문경시는 2021년 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에 참여 할 예비 청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구상단계부터 사업화 성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창업기반을 지원한다. 창업활동비(연 1200만원) 지원과 더불어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창업 공간 등이 지원된다.

시는 기술·지식·6차 산업·일반창업 분야에 지역 특성에 살린 합선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예비창업자의 신청을 받아 계획의 완성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6명(팀)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내달 8일까지로 운영기관인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경 / 안병민기자 <ahn-bk@jeonmae.co.kr>

마늘·양파 재배포장 관리·병해충 방제 당부

경북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마늘·양파 재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품질 향상과 다수확을 위해 재배포장 관리와 병해충 방제에 신청 세 종 것을 당부했다.

마늘·양파 재배 시기에 서릿발 때문에 땅 위로 작물 뿌리가 나와 있으면 들뜬 부위를 눌러서 뿌리 부분이 완전히 묻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배수가 잘되지 않아 과습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포장에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해야 하며 습해 발생이 심한 포장은 멀칭(농작물을 재배 할 때 경지표양의 표면을 덮어주는 것)을 일부 걷어 피해를 점검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흑색썩음균핵병, 노균병과 고지리파리·뿌리 등에·선충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해 적용약제를 적기에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안동>

전략·활성화 계획 수립 주민 공청회 절차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승인 신청

경남 산청군의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군은 22일 '산청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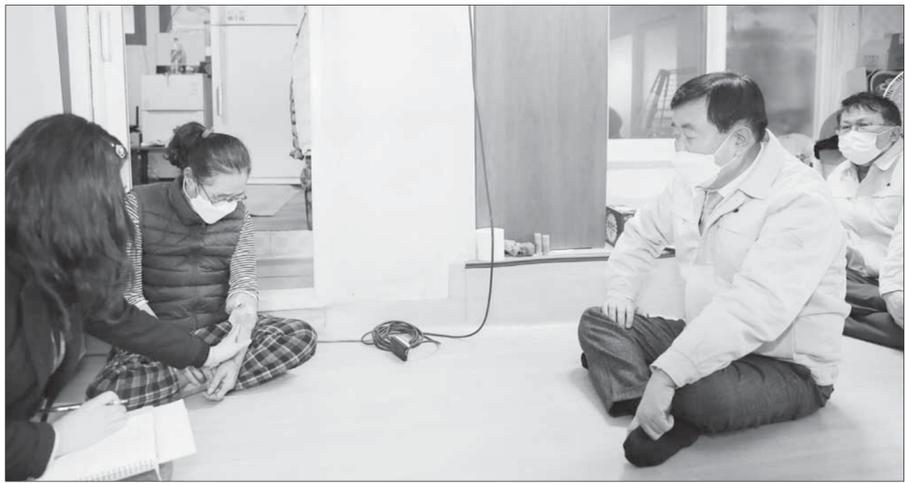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참여 주민들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꾸려졌다.

공청회 전문가 토론에서 유진상 창원대 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동석 경남대

교수, 마상열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엄준식 경상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을 진행한 전문가들은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안전들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의견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앞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산청지역 주민들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전남 진도군은 이동진 군수가 읍·면의 주요 사업과 현안 사항을 파악, 민생을 살피기 위한 '민생 현장 탐방'을 시작했다. <진도군 제공>

이동진 진도군수, 민생현장 탐방 '군민과 소통'

읍·면 방문 고충 사항 등 파악

전남 진도군은 이동진 군수가 읍·면의 주요 사업과 현안 사항을 파악, 민생을 살피기 위한 '민생 현장 탐방'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19일 지난면을 시작으로

소그름 소통을 강화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정의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희망찬 군민 반영하는 진도를 건설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민생현장 탐방은 진도읍(22일), 군내면(23일), 고군면(26일), 의신면(28일 2일), 임회면(3월 4일), 조도면(3월 5일) 등 읍면을 방문, 현장 소통 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군수는 "읍면 방문이 끝나면 마을 주민, 사회단체를 직접 찾아가 대화하는 등

호남취재본부 / 서길원기자

광양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고삐'

내달 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전남 광양시가 해빙기를 맞아 취약시설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시는 22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공사장 주변의 지반 침하, 균열 ▲건축물 피해 확인 ▲절개

지, 낙석 위험지역의 안전시설(낙석 방지 망, 방지책 등)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

축대, 옹벽 상부 하단부의 침하, 균열 발생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큰 경우 현지 시정·보완 등으로 주요 위험요인을 조기 제거하고, 예산 확보 등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은 필요 시 사용금지(사용제한), 위

험구역 설정, 통제선(안내표지판)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별도계획을 수립해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이삼식 시 안전총괄과장은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사고예방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약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 구용배기자

남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착착'

전북 남원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내달 중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대응요원 등을 필두로 11월까지 남원시

민 70% 이상 예방접종이 완료되도록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행지원팀과 접종총괄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남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보건소 예산외의 및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11개 접종팀을 편성했고 예방접종 문의 및 이상반응 신고를 위한 코로나19 콜센터(025-1339)에 2명 6명을 배치했다.

또한 남원시사회복지 5개 기관 11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통해 의료진 확보 및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했고 위탁의료기관을 점검해 백신 보관·관리 및 이상반응 관리에 적합한 기온을 선정한 계획이다.

접종비는 전액 무료이고 접종 순서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국내 확진자 상황과 백신의 공급 시기 및 확보량 등을 고려해 조정하며 백신의 종류는 선택할 수 없다.

이원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과 의료진을 위해

접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백신공급 일정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종대상자는 시기에 맞춰 빠짐없이 접종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 /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영양군, 내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25일까지 신청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 11일 경북 영양군을 방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 3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22일 군에 따르면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교육·농림·문화·환경·복지·노동·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로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날 이동신문고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행정 분야·부패 신고·행정심판·민형사·생활법률 등 상담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제도권 밖 비수급 민원상담, 한국국도정보보국사의 지적 분쟁 상담,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분쟁 상담, 고용노동부의 노동 문제 상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군청에 마련된 이동신문고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예약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오는 20일까지 군청 기획예산과 감사담당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상담예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도장 군수는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해결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전문가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양 / 김광원기자 <kw-kim@jeonmae.co.kr>

의령군, 카드형 '반려동물 등록증' 발급

경남 의령군은 이달부터 기존의 종이형 동물 등록증을 카드형 동물 등록증으로 대체 발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카드형 동물 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해 기존 종이 등록증보다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고 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이 기록돼 있어 활용도가 높다.

신규 등록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장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기존 종이형 등록증을 카드형 등록증으로 교체해 희망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로 방문하면 무상으로 교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군은 동물복지와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의령 / 최판규기자 <chpag@jeonmae.co.kr>

배우고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산청군의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유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년층 주가인정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상대적으로 쇠퇴가 더 많이 진행된 지역은 재생사업이 조속히 시행돼 지역에 활기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은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도에 최종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청회가 산청군 도시재생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청 / 박종복기자 <bjb@jeonmae.co.kr>

강진착한한우,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대박'

24억4000만원 매출 전년 대비 49% 증가

전남 강진군은 설 명절 특별 관측행사 기간 동안 '강진착한한우'의 직거래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강진착한한우 직거래 판매업소 37개소에서 특별 판매를 진행한 결과 24억 4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 특판행사 기간의 16억 2800만 원에 비해 49%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의 88%인 20억 원으로 나타나 강진착한한우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진착한한우의 판매량이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꾸준한 송아지 개량 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한우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한번 구입한 소비자가 재구매하게 됨으로서 고정 수요층을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육선, 위계 등 온라인 쇼핑몰 10여 개소에 입점해 판매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승욱 군수는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 한우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다양한 온라인 행사를 통해 강진착한한우가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 개최 위한 로드맵 확정

스마트·웰니스 등 7개 키워드 선정

경남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내년 5월 개최되는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스마트 엑스포 ▲공존 엑스포 ▲웰니스 엑스포 ▲콘텐츠 엑스포 ▲비즈니스 엑스포 ▲LIVE 엑스포 ▲Carbon-Free 엑스포를 7대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로드맵은 엑스포 주관대행사 선정, 행사 운영 종합매뉴얼 작성, 엑스포 전방위 홍보, 협의체 구축, 국내외 학술대회 및 행사 유치, 관람객 단계별 유치 및 해외네트워킹

구축, 녹차 제품 개발 및 홍보, 차 관련 체험 프로그램 및 인력육성, 엑스포 행사장 시군연계, 전시행사 연출 등 총 27개 전략 99개 실행과제로 이뤄졌다.

조직위는 이번 확정된 로드맵을 통해 엑스포 추진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며 전 국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달 중 엑스포 성공기원의 메시지를 담은 공식 출품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동진 조직위 기획본부장은 "전국 차 단체, 차인 등으로부터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상시로 받아 행사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차주 로드맵 반영 과정을 점검하고 보완해 전 세계인이 찾아오고 싶은 엑스포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동 / 임홍섭기자 <imhs@jeonmae.co.kr>

대구시, 내일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지원 방법·절차 등 정보 제공

대구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구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온라인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회사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내용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구시와 사회적경제지원기관 등은 창업 단계 기업에게 독립 사무공간과 협업공간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발굴을 도와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교육과 설명회

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과 (에비)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등으로 인지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에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시 최고 5년간 간접비의 40~70%가 지원되고 사업개발비·사회보험료 등 다양한 재정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대구사회적경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세부사항 문의는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식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053-256-4930)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 /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순천시, 시민 원고 출판비 지원 사업 운영

전남 순천시는 22일부터 시민들의 책 쓰기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도서 출판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시민 원고 출판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 원고 출판비 지원 사업'은 순천시민이 순천 출판사에서 출판한 도서를 도서 관운영과에 5권을 납본, 출판 비용의 일부(최대 50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사전 신청한 후 납본 기간 내에 출판증명 서류와 출판 조건에 맞춰 출판한 도서 5권을 순천시 도서관운영과로 제출하면 된다.

안문수 시 도서관 운영과장은 "2019년 시민 작가 발굴 공모전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책 쓰기 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며 "출하는 시민 1만 권 책 쓰기를 목표로 다양한 책 쓰기 프로그램들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니 책 출판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판 조건,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순천시 도서관운영과(061-749-0687)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 서길원기자 <sjw2009@jeonmae.co.kr>

함안군, 저소득층 신규 수도 급수시설 공사비 지원

경남 함안군은 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규 수도 급수시설 공사비를 지원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올해 자체 예산 1500만 원을 투입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주택 전세를 무효로한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액공사비 가구당 73만원을 2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급수시설 설치 희망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와 신규급수공사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가타 자세한 사항은 군 행복나눔과 기초생활담당(☎30-2473)으로 문의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안 / 김정도기자 <jd2009@jeonmae.co.kr>

‘문화·관광도시 흥성’ 새 도약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등 추진 한층운생생 생가지에 50억 투입

충남 홍성군이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스스로 흥성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사업 목표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민·전문가·공공기관 등과 함께 문화적 거버넌스를 구성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자산 활용 콘텐츠 기획, 문화거점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조직

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 군의 도시재생사업, 청년정책사업, 농·수·축산분야 사업 등 군정사업과 문화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대표적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역사자원을 정비하는 등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흥성의 주요 관광지인 한층운생생 생가지에 50억을 투입해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교육 기능과 휴게·여가 기능이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결성읍성 정비사업으로 전당대 및 숲 문화공원과 문화탐방길 조성 등 총28억을 투입해 경관·유적·식생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으로써 친밀한 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2025년까지 188억 8400만 원을 투입해 홍주천변 양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홍주읍성 내 음식체험·시식관, 관매관, 전시실 등의 전통음식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중정유교문화체험 복합 콘텐츠를 구축할 예정이며 홍주읍성, 전통시장, 홍주천변 여객길 등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로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서계원 문화관광과장은 “문화유산 개발을 통해 군의 역사·문화·관광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전국적으로 흥성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누구나 오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최석교기자 <sgchoi@jeonmae.co.kr>



<윤인도공사 제공>

윤인도공사, 마평동 주민으로부터 공로패 받아

경기 윤인도공사사는 최근 마평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평동 주민으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윤인/ 유원수기자 <yousu@jeonmae.co.kr>

“정선군 집단감염 최초 전파 매개 불분명”

최승준 군수, 긴급 브리핑 임계면 이동선별지료소 설치·운영

강원 정선군 임계면 한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초 전파 매개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준(사인) 군수는 22일 오전 11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초 전파 매개는 아직까지 불분명해 인제 44번 확진자에 대한 발생 경위 및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지역 내 감염원을 토대로 중앙수습본부에서 내려온 역학조사결과와 함께 모든 개인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검사 진행에서 교회와 연관성이 없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 내 감염이 상당 진행됐을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의 경우 보건당국은 임계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임계면에 이동선별지료소를 설치하고 관련 접촉자와 접촉 우려자 등 73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차적으로 814명 중 5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이중 예배 및 교회 프로그램 참석

자가 2명, 나머지 3명은 그들의 가족 또는 지인 등으로 해당 교회발 감염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이 3명 중 임계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2명이 포함돼 임계면행정복지센터는 일시 폐쇄됐다.

또한 군은 지역 내 확산을 막고자 각종 체육시설과 목욕탕, 5일장 운영을 중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임시 중단하는 한편 정월 대보름 축제 등 각종 행사도 전면 취소했다.

최 군수는 “코로나19 전파와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에 힘써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선/ 최석재기자 <jhchoi@jeonmae.co.kr>

“새콤달콤 논산딸기, 온택트축제로 만나요”

유튜브채널 ‘논산딸기향TV’서 24~28일까지 요일별 라이브 프로그램·특가판매 등 다채

충남 논산딸기가 전국의 랜선관광객의 마음을 달콤하게 물들일 것을 예고했다.

시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간 유튜브채널 ‘논산딸기향TV’를 통해 ‘2021년 온택트 논산딸기축제’를 개최하고 논산딸기의 뛰어난 품질과 맛을 전국으로 알린다.

시는 요일별로 ▲논산딸기, 색에 반하다 ▲달콤한 향에 취하다 ▲맛에 미치다 등 각기 다른 테마를 주제로 라이브 프로그램 6종 16개, VOD콘텐츠 10종 24개, 딸기 특가판매전 3종 1개, 이벤트 행사 3종 16개 등을 준비해 전국민의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24일 딸기향 농촌 테마공원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개그우먼 김민경의 딸기케익만들기, 채환, 써니힐 등의 축하공연은 물론 논산딸기가 전국최고의 명품 딸기로 거듭나기까지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는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팸투어를 통해 딸기농가 및 우리지역 문화재를 탐방하면서 일어난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비롯해 선산인랜드, 탐정호, 출렁다리, 돈암서원 등 논산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관광 명소를 랜선으로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매일 3차례에 걸쳐 30%할인된 금액으로 딸기를 구매할 수 있는 특별전이 예정되었으며 특히 1일 1회 진행되는 ‘논산딸기 Talk&Music 라이브 커머스’는 전문MC와 가수 강혜연, 박서진 등 유명게스트가 출연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명품논산딸기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시간으로 이뤄져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논산/ 박석희기자 <psh@jeonmae.co.kr>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건의

자치 입법권·재정권 강화

제주도의회는 자치 입법권·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내달 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도민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며 내달 17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도의회 의원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날 추진단을 구성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110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제주특별법 제2장의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분권’으로 개정과 주민투표 권한을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도지사으로 이양하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면세 특례지역 적용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규모 3% 확대 등을 논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명칭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센터’로 바꾸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봉 개정 추진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철원군, 접경지역 관광활성화·상생협력 업무협약

연천군과 체결

강원 철원군은 22일 경기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대표적 접경지역으로서 업무협약 주 내용으로는 ▲상호 지역연계 관광을 통한 관광활성화 ▲관광 정보 교환 및 발전을 위한 협력 ▲대표축제 참여 및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현종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철원군과 연천군이 그동안 각자 쌓아온 관광홍보 및 개발, 관광 활성화 노하우를 협력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양 지자체의 관광산업



강원 철원군은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철원군 제공>

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철원관광 홍보를 극대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아산폴리텍대학 방송영상과, 미래신성장동력학과로 선정

정부 예산 10억 확보

아산폴리텍대학 방송영상과는 올해 미래신성장동력학과로 선정돼 1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방송영상과는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시대에 요구되는 산업변화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혁신 주도형 기술 인재 양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 최첨단 미디어스튜디오와 가상현실 장비를 비롯한 방송영상 장비를 구축해 최고 수준의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는 지난해 러닝팩토리에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XR 스

튜디오실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의 교육기반을 다져왔다.

방송영상학과 졸업생들은 현재 KBS, SBS, TVN, OCN, 연합뉴스, 톨고래 유괴단 등 공중파, 케이블, 유튜브 등 다양한 방송분야에 진출해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는 “오는 7월 완공 예정인 신축 건물에 미래신성장동력학과에 대한 지원 예산 10억 원의 전용 실습실을 확보한다”며 “최고의 실습장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사회에 배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폴리텍대학은 23일까지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아산/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화성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특례보증 출연실적 우수지자체 선정

경기 화성시가 특례보증 출연실적 우수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되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22일 오후 접견실에서 서철모 시장과 이만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장경희 화성시 일자리경제국장, 이향순 소상공인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해 특례보증제도를 위해 도내 최

고금액인 62억 원을 출연하고 특례보증 지원 실적은 1334건에 608억 원으로, 도내 가장 많은 지원을 기록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및 등록일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4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고 보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대출이자 2%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sp@jeonmae.co.kr>

정선 아리랑 관련 유물 공개 구입

강원 정선 아리랑박물관에서 전시 및 연구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유물을 내달 19일까지 공개 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입 대상유물은 ‘아리랑 및 정선아리랑제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유물’ 자료 등이다.

소장품의 매매를 희망하는 개인 소장자 및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은 이달부터 내달 19일까지 아리랑박물관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arirang519@naver.com)로 접수한다. 더불어 매도희망 유물은 문화재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강원 황성군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500Kv HVDC 동해안(신한울)~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4개면 10개리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동해안(신한울)~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해 오는 2025년 6월까지 약 200km의 선로를 준공하는 사업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서부구간에 황성군, 흥천군, 경기 양평군, 가평군이 포함돼 있다.

군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현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연다.

황성/ 안중률기자 <iyahn@jeonmae.co.kr>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

강원 속초시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1~2월 중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참여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진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4개 유형 37개 사업이 착수돼 2811명이 활동 중이다.

현재까지 미추진 중인 사업은 학교관련 사업 등 수요처의 사정에 따라 내달부터 사업 추진이 필요한 3개 사업으로 해당사업들은 사업 시작 전 각종 활동안전교육을 우선 진행한 후 내달부터 150명이 현장에 투입돼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속초/ 윤태훈기자 <youth@jeonmae.co.kr>

GRAND OPEN

선착순 조합원 추가모집

서산의 눈부신
꿈이 완성됩니다

서산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인기에
당신이 기다려온 아파트가 새롭게 찾아옵니다!

설립인가
완료

토지계약
100% 완료
(사유지 기준)

서산 마지막
700만원대

- 01 조합설립인가완료 (2019.12.27.)
- 02 토지인양보증 사업토지 100%계약완료(사유지기준)
- 03 서산 마지막 700만원대 가격인상전 선착순모집
- 04 권역개발준공완료 수석동 복합터미널이전예정
- 05 서산시 차곡리동 권역신원 신회의아시아인력(주) 관리로 안심

서산 위의 서산! 그 가치와 특권이 단연 돋보입니다

서산이 꿈꿔온 가치 높은 아파트이자 서산의 신중심에 들어서는 빛나는 랜드마크입니다

서산 센트럴시티
서희스타힐스

문의
041)

총 450세대

59㎡(132세대) / 73㎡(90세대) / 84㎡(228세대)

1세대 1주택 특별세율 적용 대상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용보급 : 충남 서산시 서해로 3573

주요시설 : 편의점, 카페, 커뮤니티센터,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관리사무소, 보안시스템

오늘의 날씨 출근길 한파...찬바람에 제강기온 '뚝'

23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1도,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말했다. 날씨가 추워지는 대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동해 북부 해상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울릉도·독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5cm,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이날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지역, 제주도에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광양 백운산 임도 개설공사 환경파괴 심각”



무차별 산림훼손에 우기철 앞두고 산사태 불보듯
주민·환경단체 반발...대책 촉구 입장문 내달 발표

산림청이 서울대학교 국유림임도 지원 보조사업으로 발주, 전남 광양시산림조합이 시공, 광양시가 행정 사항을 지원하는 '백운산 국유림 임도개설공사'가 산림훼손은 물론 '자연환경파괴 임도개설'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160번지(백운산 중턱 일원) 국유림 간선임도 4.2km 구간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소나무 등 수천그루의 나무와 암반이 무차별 훼손하고 있다. 서울대는 학술연구, 데이터 구축, 지역을 연결하는 공동(임도)의 기능과 산불 발생 초기대응, 고로쇠 채취 등 지역 속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4개년 동안에 걸쳐 시공, 현재 봉강면 조령리 일대 백운산 중턱 4.2km 구간공사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백운산이 임도개설에 따른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시민단체들과 백운산 등반객에 나선 주민들이 이 현장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백운산국립공원준비위원회 이경재 실무위원장은 "임도개설은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고 임도를 최소화 해야 하나 현재 공사는 백운산 6~7마 능선을 가로질러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임도가 가진 기본목적과 상



전남 광양시 백운산 국유림 임도개설공사 현장.

반면 공사로 임도 폭이 6~7m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 우기철 산사태가

불보듯 뻔하다"며 "내달 4일 준비위가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

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여주시 변이 확진자 파악 '뒤숭숭'

市 "확진된 사항 없다" 주민들 심리적 불안·동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4명이 경기 여주시 외국인 가족 관련자라는 일부 보도에 시의 확인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에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2일 여주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코로나19 현황을 관내 누적 확진자 192명, 격리 21명, 사망 8명, 능동감시 7명을 밝힌 가운데 외국인 가족의 관련 집단 확진이 발생한 거주 지역 일부 주민들은 지난 20일

변이 바이러스 보도로 심리적 불안과 동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4명이 시 외국인 가족 관련자라는 보도를 보고 불안해서 읍사무소 및 여주시 등에 문의를 했으나 확인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본지도 지난 2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주시 보건소 관계자 및 재해대책본부 근무자 등에게 여러차례 사실 관계 확인 취재를 했으나 보건소 관계자는 변이 바이러스 검사 및 관리는 중

양정부에서 하는 사항으로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기도 등 여러 경로로 통해 사실 관계를 알아보려 했으나 이날 오후 늦게까지 파악이 안됐다고 전했다. 시가 변이 바이러스 관내 발생과 관련해 파악을 못한 것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 주먹구구라는 핑계로 적극적으로 직원을 해당 부처에 파견을 안하고 전화로만 확인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세종시, 공공건축물 6곳 그린리모델링 공사 추진

세종시가 22일부터 오는 5월까지 무차이어린이집 등 관내 공공시설 6곳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등 6곳을 선정해 국비 약 14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5억 원을 더해 총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선정한 대상지 6곳은 ▲무차이어린이집 ▲연서면보건지소 ▲양곡보건지소 ▲송곡보건지소 ▲정류보건지소 ▲연기어린이집 등이다. 주요 공사내용은 고성능 창호 교체, 내·외벽 단열제 시공,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등으로 에너지효율성과 실내공기질 개선에 주목적이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환경을 개선해 읍·면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예산군 삼교읍, 내국인 기준 인구 수 1만명 달성

충남 예산군 삼교읍이 지난달 27일 1만 번째 주민등록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국인 기준 인구 수 1만 명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군은 내포신도시 조성 및 충남 내포혁신도시 지역에 따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 신호탄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교읍은 지난 2018년 882가구 이주하던 1차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1차의 공공임대주택 604가구가 입주하면서 지난해 말 9665명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내포신도시가 자리하고 충남 내포혁신도시로 지정된 삼교읍은 향후 5000가구의 아파트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통, 유통, 공공기관 등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유입이 보다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군은 이러한 인구 증가에 발맞춰 총 4개 분야에 1539억 원을 투입해 충남 내포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예산/ 이훈택기자 <chntlee@jeonmae.co.kr>

강원 고성군농업기술센터, 트랙터 사용법·안전교육

강원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영농 철 논기계 임대 사용자 증가에 대비, 23~25일 트랙터 사용 방법과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트랙터 임대 자질을 주고 자가 학습 교육을 통해 농기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지난해의 경우 57명이 수료했다. 군은 간성읍 고동리 학습포장에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총련한 학습 교육을 진행하며 안전교육 이수자 중 평가를 통해 합격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트랙터 임대 자격을 부여한다. 교육내용은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조작 방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행 요령 등이며 오전·오후로 나눠 50명씩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 트랙터 임대는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 농기계운전교육 수료자,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안전사용교육 수료자, 트랙터 보유자 중 1개 항목 이상 요건충족 시 임대 가능한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삼척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추진

강원 삼척시는 내달 20일까지 국비 등 사업비 7000만 원을 들여 소구역 모두메기와 예방나무주사 등 긴급방제사업을 추진한다. 방제사업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주변 일대 39필지로, 발생지 인근 7개 번지 소나무 132본에 대해서 소구역 모두메기를 실시하고 감염목 주변 12.2ha와 미로면 준경묘와 영경묘 일대 문화재보호구역 5.8ha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관내 동량동 산 162번지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방제지 일대를 긴급방제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 발생지역 인근 2km에 해당하는 교동, 상내동 일대 321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설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운반차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 고사목은 시 산림복지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삼척/ 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충남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도 함께 '걷주'

행복 걷기 '소방가족 집중 참여 기간' 운영 마을 담당제 활동 중 어르신에 홍보활동도
충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스마트폰 앱 '걷주'와 함께하는 행복 걷기에 적극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역지침을 준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걷는 것이다. 도 소방본부와 의용소방대연합회는 행복 걷기 봄을 조성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소방가족 집중 참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평소 화재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기초체력 관리가 필요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걷주 앱을 통한 걷기운동은 도정 발전 기여와 개인 건강 유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마을을 찾아 안전을 살피는 '의용소방대 마을 담당제' 활동을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적



충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스마트폰 앱 '걷주'와 함께하는 행복 걷기에 동참한다. <충남도 제공>

극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경철 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가족이 가까운 걷는 걷어가기 운동 등 행복 걷기에 적극 동참해 건강하고 행복한 충남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가평군, 내년까지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38억 투입

장애인 건강·복지증진 기여 기대
경기 가평군이 내년까지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한다. 경기개발연구원 기획팀이 실시한 장애인들의 휴식 및 체육활동 등 건강한 여가활동으로 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가평읍 읍내리 880번지 일원에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건축면적 1360㎡에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농구장, 배드민턴, 탁구, 보치아, 슐런 등 장애인 전용 스포츠 공간이 마련된다. 또 2층에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등 복합용도 시설이 설치되며 사업비는 38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은 유관단체 협의 및 의견 수렴을 비롯해 지자체 벤치마킹 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 검토, 설계공모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올해 공사를 추진해 내년에 준공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애인체육관이 건립되면 장애인 스포츠 동호회 등 운영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애인의 재활·사회참여 활동 지원 확대 및 장애인 단체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군은 재활서비스 공간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장애인복지관을 증축 완료하기도 했다. 기존 2층 체력단련실과 물리치료실을 리모델링해 확장하고 3층을 증축해 주간보호센터, 강당, 교육실 등으로 꾸미는 등 소통과 공유의 장애인 복지 허브 공간조성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체감도를 개선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 운영으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의 체력·사회참여 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재활 향상 및 복지수요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군포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28명 모집

내달 20일부터 2년 동안 근무
경기 군포시가 유통식품 감시 및 검사 지원 등의 역할을 맡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28명으로 내달 20일부터 2년 동안 식품점검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 지원,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점검 등 방역활동 지원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동안 하루 4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루 5만 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군포시 주민등록자여야 하며 관공학과 졸업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식품위생 행정사무 경험자 등은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군포시 위생 자원과 식품안전팀에서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내달 15일 선정자를 확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재수 시 위생지원과장은 "유통식품 안전의 신뢰도와 식품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먹거리 안전도 시 군포를 조성하기 위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모집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 이재홍기자 <goodnews@jeonmae.co.kr>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 반입정지 '조개개' 허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5일간 반입정지 벌칙에 '조개개'가 허용됐다.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매립지공사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반입정지 일수를 나누는 방안을 허용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공사는 지자체들이 지난 2018년 반입량의 90% 수준인 반입 총량을 지키 수 있도록 수도권 3개 시도 등과 협의를 거쳐 위반 지자체에는 5일간 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벌칙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위반시 행정 5일에 주말 휴일까지 포함해 일주일간 쓰레기기를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하지만 실제 벌칙의 강도는 매우 낮았다. 공사가 반입정지 일수 나누기를 허용하면서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들은 2일과 3일로 나눠서 반입정지 벌칙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사는 각 지자체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반입정지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부터 지자체들은 지자체별 반입정지 시차되지만 폐기물 처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반입 총량을 합당한 수도권 지자체 58곳 가운데 74%에 해당 하는 43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올해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립지에 버린 생활폐기물 양이 지자체별 합당한 양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공사는 주민 불편 발생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반입정지 일수를 나누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는 입장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보령시, 해빙기 대비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관리 대상시설물 점검
충남 보령시는 해빙기 대비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내달 한 달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3월 해빙기에는 큰 일교차로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공사장, 축대·옹벽, 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사고 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해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망 구축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응급조치를 위해 주·야간 상황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현장, 축대·옹벽, 급경사지, 노후주택 및 기타시설물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집중관리 대상시설물을 지정하기로 했다. 보령/ 이연영기자 <leegy@jeonmae.co.kr>



경기 동두천시 생인1동 새마을부녀회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결연대상자 30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했다.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 추진

결연대상자 30가구에 전달
경기 동두천시 생인1동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지역사회보정협의체 후원으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결연대상자 30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부녀회 회원들은 불고기, 두부조림, 무생채 등 정성스런 밑반찬을 준비하고 결연을 맺은 30여 가구

를 직접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의 안부를 확인했다. 한편 인경녀 부녀회장은 "코로나19로 바깥 출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스한 한끼를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 이옥규기자 <leewg@jeonmae.co.kr>

마스크 1장 6천원에 산 구매자, 국내 첫 환불 소송 패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질 당시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산 구매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2부(재판장 김용민)는 마스크 구매자 A씨가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으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에 따라 판결이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물가액(3000만원 이하)이 적은 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한 장당 5000원에 산다. 총비용은 11만9000원이었다.

그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냈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작년 3월 '마스크 대란' 때 민사소송 법원, 원고 청구 기각 이유는 미공개

A씨는 소송 과정에서 "B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공포심, 즉 심리적 압박 상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한 이후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A씨가 처음이었다.

연합뉴스/ 손현규기자

봄나들이 '복적'...거리두기 '미적'

지역사회 잔존 감염 '여전' '방심할수록 감염 재확산'

봄날씨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12도로 예보됐다. 전날 서울 최고 기온이 17.4도로 4월 중순 기온 분포를 보이는데 이어 이틀째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다.

기온이 오르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는 데는 유리해진다. 바이러스 활동력 자체가 줄어들고 겨울철 대유행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3밀(밀집·밀폐·밀접)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근해진 날씨로 사람들 이동 빈도가 늘고 모임이 많아지면 언제든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경계심을 늦추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주간 발생동향을 보면 무증상자 비율은 2주 전(7~13일) 전체 확진자의 34.2%에서 지난주(14~20일) 36.1%로 증가했다. 여전히 지역 사회 내 잔존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기온이 오르면 주말동안 서울 한강공원 등 야외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 시간 제한이 오후 9시부터 10시로 연장되면서 야간에 회식이나 모임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목해고 유증주점으로 운영하거나, 오후 10시 영업제한을 피해

오전 5시부터 문을 여는 등 '곰수 영업'도 많이 따뜻해지면 더욱 활개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주 중 확산추이를 검토한 뒤 3월1일부터 시작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기온 상승'은 장단점이 있다"며 "바이러스 활동력이 줄어들어 감염 확산은 억제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모이게 된다"고 말했다.

또 "거리두기 완화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지역 사회 감염이 많은 상태에서 모임이 많아지면 기온 상승에 따른 단점이 훨씬 부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학위수여식도 온라인으로 생중계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 대표 일부와 내빈만 참석한 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이지은기자

청소년들 사이 명품 구입 인기속 '신중 학풍' 부쩍

10대를 사이에서 최근 명품 구입이 인기를 끌면서 신중 학풍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청소년들의 명품 구매가 확산되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손쉽게 되팔 수 있어 이를 금품 갈취에 악용하는 행태다.

이는 단순 학교 폭력을 넘어서 행사 차비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청소년 상담사는 "가해자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명품을 직접 갈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팔도록 강요한 뒤 이를 가져가는 식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사회에 따르면 명품 관련 학교폭력 상담은 최근 일주일에 2~3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명품을 사려고 자신이 소유한 '작품' 명품을 피해자들에게 비싼 값에 강제로 팔아넘겨 돈을 빼앗기도 한다. 이때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다고 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아야 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행사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변호사 출신인 이나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명품이 학생들의 용돈으로 살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다 보니 금품 갈취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최근 2년 사이 명품을 매개로 한 학교폭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윤미기자 <ky@jeonmae.co.kr>

경기북부경찰, 백신 접종 지원 만전...수송 에스코트

경기북부경찰청은 22일 백신 접종을 앞두고 '경기북부경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본부'를 발족하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본부는 유증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5개 대응팀과 4개 지원팀, 접종 지원단 등으로 구성됐다. 교통·경비·수사·정보 등 총 11개 관련 기능이 백신 수송, 접종 시설 방호, 의료인 안전 확보 등의 분야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 수송 경로 구별별 고속도로순찰과 교통신호대를 배치해 이천·평택 소재 물류센터부터 각 지역 요양병원과 백신접종센터 등까지 에스코트를 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접종센터에 무장 경찰관 2명을 고

정 배치하고 연계 순찰을 강화하며 접종센터와 비상 연락망을 구축한다. 아직 접종 기관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우발 상황 발생 시 경찰 특공대와 경찰관 기동대, 112차량대 등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 비의료인의 접종 행위나 불법 백신 제조·판매 등을 단속하고, 의료인 폭행 등 백신 접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모나리팅 전담 요원을 지정하고 사이버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 정보가 유포되기 전에 차단하고 유포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경부/ 김진규기자 <kjg@jeonmae.co.kr>

공무원 저연령일수록 자부심 떨어진다

행정연구원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 '국민 봉사 중요' 50대 72% 20대 42%

공무원들의 연령대와 연차가 낮을수록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봉사 인식, 만족도는 낮고 이직 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9월 46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4111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중요하다'는 질문에 50대 이상 공직자는 71.5%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20

대 공직자는 이 비율이 42.3%에 그쳤다. 봉사 인식은 전체 연령대에서 2019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는 20대 46.3%, 30대 46.5%, 40대 62.2%, 50대 78.4%가 '봉사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나 지난해 조사 때는 20대 42.3%, 30대 44.3%, 40대 57.7%, 50대 71.5%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하락했다.

공직 자부심을 뜻하는 공직 가치 인식과 만족도 역시 2030 세대 공무원이 그 뒷세대로 나타났다. 공직 가치를 민주적 가치·윤리적 가치·인간적 가치·전문직업적 가치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1~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 전문직업적 가치 부분의 경우 50대 이상 공무원은 3.82점이었으나 20대는 3.38점에 그쳤다.

인간적 가치에서는 50대 이상은 3.91점인 데 비해 20대는 3.59점이었고, 윤리적 가치도 50대 3.87점·20대 3.38점으로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20대와 50대 공무원 간 인식차는 윤리적 가치 부문에서 0.49점으로 가장 컸고 인간적 가치 부문이 0.32점으로 가장 적었다. 직무만족도도 50대 3.75점, 40대 3.51점, 30대 3.32점, 20대 3.22점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저조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사건·사고

'경비원 폭행범' 체포포 경찰 2명 불문경고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인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기 경찰청은 지난 18일 장계위원회를 열고 장 기자대 소속 50대 A 경위와 30대 B 순경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인 전용 출입구에서 중국 국적 입주인 C 씨(35)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또 C씨를 인근 호텔 안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경찰관은 C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아 추가 범행과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대처를 했다고 소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체포 요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에도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이들 경찰관을 장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포/ 범민수기자 <bangms@jeonmae.co.kr>

경주서 전복된 어선 실종자 더 발견 못해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지난 19일 전복된 어선 실종자 수색이 4일째 맞았으나 4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2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주 감포 해상에서 전복된 9.7t급 어선 거봉호 추방을 밤새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추가로 찾지 못했다.

앞서 해경은 21일 승선원 6명 가운데 숨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해상에서 발견하고 배 안에 생존한 한국인 선원 1명을 구조했다.

해경은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배를 선적자인 포항 구룡포항으로 예인하기 시작했다. 구룡포항까지 들어오는 데는 20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어선에 공개주머니(리프트 백)를 부착하고 함정이 호위하도록 했다. 거봉호는 사고 후 감포항에서 약 74km 떨어진 곳까지 표류했다.

경주/ 이석기기자 <lee-seok2@jeonmae.co.kr>

근무시간 불문 행각 남녀 경찰 간부 파면

남녀 경찰 간부가 불문 관계를 맺어오다가 파면조치됐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두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다.

최근 수년 동안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 불륜으로 징직·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파면은 처음이다. 근무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여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잠깐에 걸쳐 내연 관계를 맺어왔다.

B씨는 지난해 말 만남을 거절당하자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에 이어 검찰조사에서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감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지난 20일 직위해제된 후 이달에 징계위에서 파면됐다"며 "자세한 감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안동>

전국매일신문

마스크,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마스크 착용!
나와 모두를 위한
'한 장'의 위력

**먹을 땐
말 없이**

**말할 땐
마스크 쓰GO!**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 마스크 걸 면을 만지는 행위
-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질병관리청

동정

평생교육 관계자 위촉식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23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평생교육 관계자 위촉식에 참석.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심규민 강원 동해시장은 23일 오전 11시 통상상담실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석.

노인일자리 현장 방문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는 23일 오전 9시 일월면 일대에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 현장'을 방문.

금강수원 정화공급사업 설명회
김돈근 충남 청양군수는 23일 오후 1시 30분 청남면 다목적회관에서 열리는 금강수원 정화공급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

의원간담회 참석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는 23일 오전 10시 문화강좌실에서 열리는 의원간담회에 참석.

농어업회의소 정기총회
장신상 강원 횡성군수는 23일 오전 11시 횡성축에서 열리는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정기총회에 참석.

경기도 첫 여성 소방서장 탄생
한선 시흥소방서장...소통 중심

경기도에서 첫 여성 소방서장이 탄생했다. 2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한 신임 서장은 국민대를 나와 성균관대에서 행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 2008년 소방간부후보 12기로 소방조직에 입문했다.

한 서장은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금호석유화학그룹, 사회공헌 '열정'

4개사, 마스크 6만장 여수시에 후원
여수국가산단 인근 지역민들에 전달
이번 후원물품은 설 명절 전 여수산단 인근 주삼동, 삼일동, 모도동, 울촌면 등 4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 대기업인 금호석유화학그룹 4개사가 시에 산단 인근지역 마을 주민을 위한 마스크 6만 장을 후원했다.

이은실 삼척경찰서장 "교통법규 준수 실천 중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챌린지
이은실 강원 삼척경찰서장은 22일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챌린지'에 동참했다.
삼척경찰서는 시와 협조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등 및 고장식 무인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집중설치와 캠페인을 활용한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 및 곳곳길 경찰관 배치로 스피드 안전지도 등을 활용한 비접촉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실 강원 삼척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챌린지'에 동참했다.

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30km이하로 서행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척/ 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하성동 화순군의원 '민주평통 의장표창' 수상

통일 공감대 확산 기여 공로
전남 화순군의회 하성동(사진) 의원이 22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남지역회의 '민주평통 의장표창'을 수상했다.
하 의원은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제18기 국민소통본과위원장, 제19기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아카데미를 추진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청소년 통일 공감 활동, 여성 통일 공감 워크숍 등을 추진하며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는 등의 공로로 민주평통 의장표창을 수상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도 자문위원으로서 많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며 국가와 민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평화통일은 물론 군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화순/ 서우열기자 <yeol123@jeonmae.co.kr>



양양 남대천 찾은 겨울 손님 고니떼
강원 양양 남대천에 최근 천연기념물 제201-1호로 지정된 고니떼가 찾아 눈길을 끌고 있다.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mk@jeonmae.co.kr>

의정부부, 설 연휴 업무 유공자 8명 표창

14일간 5대 범죄 41% 감소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설에 적극적인 치안활동으로 시의 안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를 위해 노력한 경찰관들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는 총 8명의 수여자가 참석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이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112신고와 받고 호원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해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채 쓰러져 있는 노인을 구조했으며, 조현병 환자가 주거지에서 치료 중 집기류를 손괴하고 가스 레인지에 물건을 태우는 등의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을 신속지구대 경찰관이 이를 제압 후 안정시켜 관련 기관과 공조해 대상자를 입원시켜주며, 기능지구대에서는 순찰 도중 차량상태가 이상해 이를 의심스럽게 관찰하던 경찰관이 해당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추격해 수배 중인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적극적인 치안활동으로 안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를 위해 노력한 경찰관들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처럼 의정부경찰서 전직원의 적극적인 치안활동의 노력으로 의정부시의 14일간 112신고는 지난해 3950건에서 올해 4146건으로 5% 증가했으나 5대 범죄는 2008건에서 1222건으로 오히려 41% 감소했다.

의정부/ 강진기기자 <kjg@jeonmae.co.kr>

김재천 여주시족구협회 제2대 회장

"코로나19 위기 내실 다지는 기회로"
경기 여주시체육회는 전남 시족구협회 김재천 제2대 신임 회장에 인준패를, 이임하는 양상모 전 회장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채용훈 체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종목 단체장의 자리는 영광인 동시에 고생과 봉사를 감내해야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임하는 양상모 전 회장에게 초대 회장으로 재임 기간 중 남다른 열의와 사명감으로 시 체육과 족구 활성화를 위해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했다. 또 "전임 회장이 시족구협회가 발전할 수 있는 초석과 기틀을 마련했다면 신임 회장은 튼튼한 기틀 위에 완전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 여주시체육회는 시족구협회 김재천(왼쪽) 신임 회장에 인준패를, 이임하는 양상모(오른쪽) 전 회장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19로 집단적 운동이나 경기는 할 수 없으나 협회 임원과 소속단체, 회원 등과 소통으로 협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포토뉴스



대한적십자사 진위봉사회, 희망동차 사랑나눔 행사
대한적십자사 진위봉사회는 최근 관내 독거노인 및 한부모 10가정에 생필품 세트를 전달하는 희망동차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산군 부리면, 마을 클린! 마음 클린! 청렴캠페인
충남 금산군 부리면은 최근 신촌1리에서 '마을 클린! 마음 클린!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동두천수도지사, 후원물품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경기 동두천수도지사는 최근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물품을 시 (사)희망동차에 천사운동본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남시 성북교회, 사랑의 빈천나누기 봉사
경기 하남시 춘궁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성북교회에서 최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빈천나누기' 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천군 문산사랑위원회, 행복 담은 빈천 서비스
충남 서천군 문산사랑위원회는 최근 지역 내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의 식생활개선과 외로움 해소를 위해 문산면 특화사업인 '행복 담은 빈천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NH농협은행 advertisement for a business support program. Text: 'NH농협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Includes an image of a convenience stor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NH Business Support Program.

타인의 고통

김연식 칼럼



논설실장

서울 부산 지방 보궐선거가 한 달 조금 더 남았다. 대한민국 역사상 서울과 부산이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도 전직 사정들이 같은 혐의로 자라에서 몰라나면서 발생한 일이다. 처음엔 아련의 당선 이 유력한 것처럼 보였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말리는 형 국이다. 물론 부산은 야권주자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서울은 확연하게 뒤처져 있다. 다만 야권단일화를 위한 제3자대 논의도 지켜볼만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선거는 항상 1위만을 위해 치러진다. 회투만도 1위만 존재할 뿐 2위는 의미가 없다. 선거판과 회투판에 뛰어난 주자는 그만큼 치열한 승부를 펼치게 된다. 주자들의 탈 붙임을 막기 위해 엄연하게 규칙이 정해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유서한다. 어떻게든 이기면 된다는 식의 생각들이 공존하는 게임의 법칙들이다.

얼마 전부터 선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물론 서울 부산 지방 보궐선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미 시

수년 전부터 포퓰리즘 공약이 어마를 막론하고 낱말되는 분위기다. 어떻게 보면 시대흐름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무료급식과 같은 혜택은 당연하지만 최근에는 국민 기본소득 문제가 심심치 않게 논쟁이 되고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짜로 돈을 준다면 달에 얼마씩 주겠다는 것인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는가? 그냥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면 되는가? 은행에서 찍어낸 돈으로 국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다면 물가도 결국 그 돈을 마련하려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최근 공시자가 상승으로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부과가 눈에 보일 정도로 상승되고 있는데, 그 고통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 결국 또 다른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 부채비율이 40%를 웃돌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의문이다. 2024년이면 부채비율이 6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몇 년 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5% 미만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했다. 부채비율에 따라 주위 등의 등급이 주어지지만 지난해 부채비율을 억제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주의 위기 단계를 넘어 경보 위험수준이 아닌가? 일부는 1900년대 일본의 국가 부채비율이 70%를 넘는 등 선진국에 비교하면 아직 양호하다는 말을 한다. 그렇지만 거품경제가 사라진 일본은 지금 어떤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전자제품과 IT산업이 무너지면서 30년이 되도록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는 않다는 보장이 없다. 당장 국민들의 손에 돈 몇 푼 쥐어주고 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 돈을 갚아야 할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 지인 한분은 수전 손택(Susan Sontag)이 지은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보게 됐다. 전쟁의 고통을 겪은 사진을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인간의 심리를 카타르시스에 비교 분석해 매우 흥미 있게 읽었다. 수전 손택은 1933년 뉴욕에서 태어난 미국 최고의 예식가이자 소설가이자 예술평론가이다. 그녀는 생전에 한국을 방문해 한국정부에 구소 문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인류평화와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다. 그녀는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통해 ‘고통 받는 유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은 내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만큼이나 격렬한 것이다’고 했다. 인간이 전쟁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죽상과 흉측한 상처 등을 보기 싫어하지만 내면에는 호기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사진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통사고 현장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보는 사람은 오히려 정도로 희열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수전 손택이 말한 타인의 고통은 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안겨주고 다른 한 쪽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받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리고 젊은 세대에 1000조원이 넘는 국가 채무를 물려주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들이 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정치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미 유럽의 몇몇 선진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 지출로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지 않았는가? 지난해 포퓰리즘에 대한 고통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민들에게 돈 몇 푼 쥐어주는 것 보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선진국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통해 국민들의 일자리가 늘치고 청년 실업률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생각을 하길 바란다.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 선거에 이길 생각만 하지 말고.....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투고, 사진, 민명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전화 1588-5762 / 팩스 031-758-4360 / 홈페이지 제보 jeonmae.co.kr

코로나19 팬데믹 후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라

기고



고 무 열

前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리라는 기술이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데이터이고, 이를 기반으로 알파고로 촉발된 AI의 발전이 사공간을 초월하여 현실과 가상 이 결합하는 공간적인 컴퓨터가 여행을 경험하고 인터넷에서 웃을 구해할 때 재질을 느낄 수 있는 메타버스(가상 세계) 기술이 개발된다. 온·오프라인의 활동으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의 경제활동, 신뢰도, 권 다선과 건강까지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이다.

코로나를 향해 총을 쏠 수는 없다. 코로나는 웬만한 전쟁에서 잃는 목숨의 숫자보다 많다. 그외의 싸움은 군인과 전쟁을 잠깐이나나,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와 회사원 공무원 일반 소비자이다. 코로나로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후유증으로는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갈등이다. 본 디 내집단이라는 이해하고 화합하고 외집단에는 배타적이고 경쟁하는데 단절과 폐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같은 삼각성은 우리 사회를 점차 암흑하게 할 것이다.

며칠 전 우리나라 선두주자인 대형 H 유통업체 외부에 ‘고별 상품전’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유통업체에 잠식당했기 때문이다. 종교 행위나 스포츠는 물론 영화나 공연도 과거와 같이 관객이 동원되지 못하고 쇠퇴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데 이러한 문화적 행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희로애락이 주제가 되지만, 폐쇄와 단절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 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쉽지 않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기는 현실로 나타났고 다행히 멈추고 싶어도 다시 출현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은 것이다. 일 년 남짓한 시간이 너무나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쳐 이미 변화됐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변곡점이 됐다. 이에 국가가는 방역과 백신을 넘어 미래에 도래할 변화와 국민이 안정적인 삶과 행복이 무엇이고 변화된 문화에 저항 없이 적응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jeonmae.co.kr

대표 전화 1588-5762

정 치 부 031-755-5600 지 방 부 031-755-5622
경 제 부 02-749-0323 광고문의 070-4325-3658
사 회 부 031-755-3484 FAX 031-758-4360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경명동, 막산빌딩)

구 독 · 배 달 간 내

서울본사 02-749-0322 강원춘천본부 033-251-4866
인천본사 032-751-1478 충남본부 041-668-3722
경기북부본사 031-967-1616 충북본부 043-255-8877
대구본사 053-471-1111 호남본부 061-742-8181
경남본부 055-761-7882 서부본부 061-284-9781
세종본부 044-665-8000 제주본부 064-723-1950

1997년 6월 24일 창간등록번호 가-438(일간지)
구독료: 월 126,000원 / 1부 7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채용사: 중국 요령일보사 조선일보

커피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카누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카누라던 누가 마셔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KANU

2021년 2월 23일

인정상속인 : 1.간양태 2.김영각 3.김영진
재리신고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92길 7-9, 402호
(전호동, 시티빌아파트)

유행기만 확인하여 식문화정책 올바르게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왕 권영지(410323-200000, 2020년 11월 18일 사망, 허남시 김대신로 126번길 33(창우동))의 법정상속인 1.김영태 2.김영각 3.김영진 은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하고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부 2021년 2월 23일자로 한정승인신청을 신청하여 2021년 2월 8일자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왕 권영지에게 대하여 채권 또는 유증을 받으신 분은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실을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인정상속인 : 1.간양태 2.김영각 3.김영진
재리신고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92길 7-9, 402호
(전호동, 시티빌아파트)

오파세대 정기룡, 오늘이 더 행복한 이유

“나, 아직 안끝났슈~”

오파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이 땅의 수많은 오파세대에게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나고, 아직도 뜨거운 열정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오파세대! 다시 행복으로 인생 후반기를 달려 나가기엔 두 배로 힘을 써야 하겠죠. 과거를 잊으려던 오파세대, 달려오려던 달려갈 수도. 기동력도, 낙성도 좋고, 추진력은 둘째가라면 서투르다. 부지런히 찾아보면 늘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선 이 땅의 수많은 정기룡이 나이 때문에 주눅 들지 않도록, 오늘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합니다.

www.namubook.co.kr Tel 02-334-3339 Fax 02-334-3318 나무문장

앞으로 10년, 인구 변화가 만드는 부의 흐름을 찾아라

인구 변화의 궤적에 숨겨진 부동산 투자의 비밀

이전 50년의 인구 변화에서 이후 10년의 투자 전략을 세운다

급변하는 인구의 패러다임 속에서 부동산 '다크타임'과 '골든타임'을 찾는 법!

- 2018-2020년의 예고된 부동산 시장 위기 가능성과 골든타임 분석
- 위기기 지나간 이후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 인구와 한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전개 과정
- 가까운 미래에 각광받을 투자처와 거시적 안목으로 보는 실전투자의 핵심
- 인구 고령화와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인구 고령화와 감소 시대에 부동산 부자로 가는 추월차선을 타기 위한 준비

인구로 부동산의 미래 | 김승환 저 | 16,800원

인구와 부동산의 미래

김승환 저 | 16,800원

인구와 부동산의 미래

김승환 저 | 16,800원



인천 시민과 함께 송도 세브란스병원(가칭) 기공식을 축하합니다.
2021.2.23

인천과 연세가 함께 꿈을꿉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세계수준의
연구·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로 거듭납니다.

